

현대산문문학

2인문단 (춘원/육당)	지식의평등화-각성한지식인	
	근대적자아에의각성촉구	
한성신문 한성순보 황성신문 대한신문 독립신문	근대적 신문	잡지간행
	1. 전문적인 직업작가 등장	2. 언문일치체(한문체→국문체)
	3. 독자층의확대	4. 관념적계몽주의의 한계를 드러냄
	토론체소설	안국선 금수회의록
	이해조 자유종	서사적논설* 비실명소설-역사전기
	신소설	창작 번역 번안 개작

<안국선, 금수회의록>

1 이 글에서 까마귀를 통해 풍자하고자 하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하여 보자.

☞ 반포지효의 주인공인 까마귀는 자기들의 지극한 효성을 자랑하면서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한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다.

1. 까마귀가 자신의 장점으로 가장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까마귀는 '반포의 효'를 내세워 자신이 얼마나 부모에게 극진히 효를 행하는가를 자랑한 후에 인간의 불효함을 대조하고 있다.

2 이 작품에는 전통적인 윤리관과 외래적인 가치관이 함께 나타나 있다. 본문에서 각각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 (1) 전통적인 윤리관 →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백 행실의 근원이라"(유교의 효 사상)
- (2) 외래적인 가치관 → "서양 책력 일천팔백칠십사년의 미국 조류학자 피루라 하는 사람이 ~ 곡식에 해되는 버러지를 잡아 먹는다 하였으니."(서구의 합리주의)

3 이 작품의 구성상 문체상의 특징을 지적해 보자.

☞ 작품 전반의 구성은 '현실-꿈-현실'로 이어지는 몽유록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액자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액자 속의 이야기를 동물들의 이야기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문체상으로는 토론체 내지는 연설체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할 사명을 지닌 개화기 문하게 있어 이러한 문체는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4 이 작품의 계몽주의적 성격을 설명해 보자.

☞ 이 작품은 짐승과 곤충들이 개화기의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비판의 대상은 인간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풍속적 타락이다. 이는 당시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지닌다. 당시에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보호국으로 들어가 지식인들의 정치적 이념적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지은이는 이 작품을 통해 전통 사회의 윤리 관념에 바탕을 둔 사회적 계몽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1. 동물을 통해 풍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 ☞ 제1석: 까마귀-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 제2석: 여우- 외세에 의존하여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고 동포를 핍박하는 일을 풍자하고 있다.
- 제3석: 개구리- 분수를 지킬 줄 모르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 제4석: 벌- 입으로는 꿀맛 같은 말을 하고 배에는 칼을 품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다.
- 제5석: 게- 지조 없이 외세에 의존하려는 인간의태도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 제6석: 파리- 동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인간을 풍자하고 있다.
- 제7석: 호랑이- 인간의 험악하고 흉포한 심성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 제8석: 원앙- 인간의 더럽고 괴악한 심성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2. 이 소설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의 입을 통해 인간을 비판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한계를 말해 보자.

☞ '금수회의록'은 동물 우화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일반적으로 풍자 소설이란 풍자법을 사용하여 표현된 소설을 말한다. 풍자법이란 인간의 개성이나 사회의 모순 등 불합리한 현상에 대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이끌어 내되, 그 웃음 속에 날카로운 사회고발을 숨겨 불합리한 현상을 비판하는 표현법을 말한다. 이러한 풍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정면으로 비판하기가 곤란하거나 때로는 보다 효과적인 비판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풍자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므로 독자에게 직접적인 정서 환기의 효과가 약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5. 이 작품이 쓰여진 개화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와 소설의 모습을 금수회의록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자.

☞ 개화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반외세, 반봉건을 통한 자주적 주권 회복과 부국강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화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가 '금수회의록'에서는 인간성의 모순과 비리의 풍자라는 방식을 통해 인간성의 개조와 인간 본성 회복에 대한 주장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이 작품은 반외세, 반봉건 의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4. 금수회의록의 마지막 장면을 읽고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작가의 태도를 말해 보자.

☞ 작가는 인간성의 모순과 비리에 대한 풍자를 통해 인간성의 개조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촉구를 통해 외세에 결탁하고 인간의 본성을 저버리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민중들의 각성을 통한 반외세, 반봉건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개화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실천할 것을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6. 이 작품에서는 동물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화의 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금수 회의록은 강한 풍자성과 비판성으로 발표 당시 금서 조치가 취해져 회수당하기까지 하였다. 이

런 점에서 생각하면서 작가가 동물을 통해 인간 행위의 우매함과 타락함을 풍자, 비판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내용의 강렬함을 의식하고 첨예한 반응을 다소 약화시키자는 의도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물에 불과한 금수들의 입장에서 인간을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강한 설득력을 얻고자 하였을 것이다.

7.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전통적 가치관과 외래적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이 글의 책 이름을 물론이고, 각 동물 연사의 이름 옆에 '사자 성어'로 된 별명이나 그 동물들의 성격을 일러 주는 관용어 등을 보면 전통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노래자, 한나라 효무제, 연태자 단, 진문공, 개자추 등의 인명과 고사를 들려주고 있으며, 논어, 본초, 강목, 시경, 산해경, 전국책 등을 인용하고 있다. 까마귀의 연설 부분에서 사람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등의 전통적 가치관에 기대어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사회 비판 의식은 주로 기독교적 인간관과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작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기독교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설정하고 있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천리 정도를 지키고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였더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여 기독교에서 궁극적이 대안을 찾고 있다.

8.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이 작품이 비판하고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자.

☞ 이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1908년)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통감 정치로 인하여 의병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개화파를 중심으로 개혁, 교육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제의 농간에 의해 국운이 쇠퇴하던 시기였다. 작자가 까마귀에서 원앙에 이르는 8종의 동물들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는 사회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 의식 실종, 외세에 의존하는 행태, 경륜 없는 정치가, 잘난척하는 개화인, 가혹한 정치 및 지배 계급의 부패, 불건전한 남녀 관계 등이었다. 결국 정치의 비리와 부패 및 외세 의존, 인간의 기본 윤리의 타락 등 전반적인 부패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9. 이 작품의 장르적 성격을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 이 작품은 문체 면에서 완전하지는 않으나 언문 일치에 접근하고 있으며, 산문과 묘사 위주의 서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일 스토리의 연대기적 전개에서 벗어나 어느 한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복수의 사건을 병행적으로 전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고전 소설의 틀에서 벗어나 근대 문학으로 나가는 신소설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금수회의록'은 '권선징악'의 틀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다른 신소설보다 더욱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수회의록'의 특징적인 면으로는 동물이 등장하는 '우화 소설'이며, 당시 유행하던 '회의 형식'을 통해 '연설체 산문 형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간이 꿈속에서 동물들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몽유록'의 형식으로 '액자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은익 은세계>

1. 이 작품의 문체상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은 거의 완전한 구어체로 언문 일치를 이루고 있고, 내용 서술에 있어서도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 준다. 특히 적목 전반부의 내용은 이은익의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라 전래하던 판소리 <최병두 타령>을 개작했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과 유사한 특징이 드러난다. <농부가> <나무꾼 노래> <상두 소리> 등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과, 리듬감 있는 서술, 관습적인 비유 등의 특징이 그것이다.

2. 이 소설의 특징을 고전 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 등 이전 소설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 이 작품은 <혈의 누>와 마찬가지로, 언문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작품 서두 및 장면 묘사가 많이 개성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점, 봉건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 당대 사회의 첨예한 현실을 정면으로 부각시켰다는 점 등 새로운 면을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우연을 위주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 선과 악이 평면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 등은 고전 소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여기에 더하여 이 소설의 전반부는 민요를 개작한 삽입가요가 들어 있으며, 판소리 사설 투의 문장이 빈번히 눈에 띄고, 아울러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관습적인 비유나 묘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후반부는 내용 전개 면에서 고전 영웅 소설과 유사한 점이 있다. 고전 영웅 소설이 대체로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지만 우연과 하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 실력을 축적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나라의 위기를 구한다는 식의 내용 전개를 보여 준다면, 이 소설 역시 <혈의 누>와 마찬가지로 '위기-구출-복귀'의 내용 전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작가가 드러낸 정치적 성향에 대해 비판해 보자.

☞ 이 작품은 이은익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 쓴 '정치 소설'로 알려져 있다. 그럴 때 이은익의 견해는 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옥남이 의병들에게 일제 통감부에 의해 즉위한 순종을 따르자고 연설하는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곧 이 소설의 전반부는 현실 고발, 민중 저항, 신학문 고취, 개화의 필요성 강조 등 긍정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으나, 후반부에는 고종의 강제 폐위와 순종 등극을 옹호하는, 친일적 성향의 매국적 태도를 비유으로써 주체적으로 민족적인 의식이 소멸하게 되어 버린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곧 이는 봉건 지배 체제에 대한 혐오감만 내세운 나머지, 민족적인 주체성을 몰각해 보인 태도인 것이다.

<이은익, 혈의 누>

1. 어휘와 문체, 시점, 어조 등의 측면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보자.

어휘	비교적 언문일치에 근접해 문어체가 많이 남아 있으나 한자어가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않음.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어조	고전 소설과 일본이 신파극의 영향을 입은 듯 운문적인 어조로 되어 있음.
구성	서술 시간이 역전적으로 배치
표현	묘사체 문장이 시도됨.
소재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

2. 내용과 표현 측면에서 <면 그대>와 비교해 보자.

		혈의 누(1906년)	먼 그대(1983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내용상	공통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 일상 생활을 소재로 삼아 여주인공의 삶을 그려 내고 있음.	
	차이점	여주인공은 계몽적 의지를 가지고 역경을 헤쳐 나가는 인물	여주인공은 불합리한 현실 생활을 타파할 의지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의 인물
<p>이는 당대인의 의식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화기에는 계몽의지를 통해 무지한 백성을 교육하고 삶의 지표를 명확히 하여 조선인 하나가 되어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는 세계를 꿈꾸었던 반면, 1980년대 초반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개인은 단지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의식 속에서 무저항의 삶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p>			
표현상		문어체	구어체

3. 설화에서 고전소설, 현대소설로 이어지는 서사 문학의 발전 단계를 정리해 보자.

설화문학	구어성이 짧은 스토리의 형태
가전소설	사물을 의인화하여 실제 삶을 풍자하고 비유하는 형태
고전한문소설	우연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 형태
판소리계소설	설화로부터 이어져 오는 문학의 성격을 계승하여 구어체에 가까운 우리 민족 고유의 서사 양식이 탄생
<p>이러 개화기 소설과 그 이후의 세태소설, 신경향파 소설 등의 양식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서사 문학이 형성. 각 시기의 서사 문학은 그 시대의 상황 뿐 아니라, 당대의 염원과 사상도 반영하면서, 앞대의 문학 문화를 계승하고 전복하기도 하면서, 형성되었다.</p>	

4. 이 작품에서 고소설보다 발전된 면을 찾아보자.

☞ 내용면에서 청일 전쟁과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적 배경을 설정하여 새로운 세계 구조를 부각시킨 점, 문명개화와 신교육을 주제로 내세운 점.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배경을 제시한 점 등이, 형식면에서 고소설의 문장이 문어체나 율문체인 데 비하여 이 작품은 구어체 문장이라는 점, 문장이 어느 정도 묘사체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 고소설의 연대기적 구성에서 벗어나 사건 중심의 구성을 했다는 점 등이 고소설보다 발전된 측면을 보여 준다.

5. 이 작품의 국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하여 보자.

☞ 이 작품은 내용상 근대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현대 소설에 접근했지만 형식이나 기법 상으로는 여전히 고소설의 구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소설과 현대 소설의 중간 단계에 놓인 과도기적인 작품으로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자.

→옥련은 신여성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많이 배워야 양성이 평등해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고, 구완서는 자유 연애를 주장하는 개화주의자이다. 특히 구완서의 입을 통해 새로운 내용의 교육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녀 평등과 자유 연애를 역설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되고 용렬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생각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로부터 당시의 시대상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미개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는 후진 사회라고 여기고, 하루 빨리 문명 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남녀 평등 사상, 미신 타파, 자유 결혼, 신문물의 수용을 통한 교육 입국론, 과학적 세계관의 주장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작품이 계몽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남녀 평등 사상, 교육 입국론, 과학적 세계관의 강조, 자유 결혼의 주장, 조혼 제도의 비판 등과 같은 개화 사상

6. 이 작품의 등장 인물들이 고전 소설의 인물 유형과는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 비교해 보자.

→이 작품을 포함한 신소설은 우리 고전 소설의 대표적인 유형인 영웅 소설의 구성 방식과 같은 인물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다. 옥련은 피관길에 고아가 되었으나 일본군에 의해 구출되고 구완서라는 청년을 만나 워싱턴으로 가며, 또 미국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즉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파멸하지 않고 극복함으로써 해피엔딩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사건의 전개도 필연적이지 못하고 우연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신소설 작가들이 아직 소설이 예술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온 결과였는데, 그 당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등장 인물들이 지닌 생각은 이전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그것과는 판이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즉 시대의 흐름과 관련하여 자유 연애의 강조, 남녀 평등의 주장, 새로운 문물의 적극적 수용, 미신 타파, 과학적 세계관의 추구 등은 고전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사상들이었다.

4. 이 작품의 배경은 미국의 워싱턴과 우리 나라의 평양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배경의 이원화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말해 보자.

→이 작품에서 배경을 두 곳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 나라와 미국의 실정을 비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즉 미국은 이미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훌륭한 생활 환경에서 문명 생활을 유지해 가는 선진국임에 비해, 우리 나라는 아직 개화되지 못한 미개국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이 미국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느냐를 보여 줌으로써 개화의 당위성을 역설할 수 있는 것이다.

배경이 우리나라와 미국으로 이원화된 것은 예술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즉 지금까지의 고전 소설에서는 대개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었는데, 우리 나라와 외국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지루함을 방지하고 신선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4. '신소설'은 그것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참신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 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신소설'이란 명칭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타당한지 다음의 관점에서 서로 토의해 보자

(1)문학 작품은 창작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
 ☞ 문학 작품의 갈래 명칭은 그것을 읽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창작된 당시의 상황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그 의미까지 그 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명칭은 그 당시의 상황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고전 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답습하고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는 해도 개화기 당시의 상황에서는 신소설이 그 때까지의 소설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었으므로 엄연히 신소설로 불러야 마땅해. 새로움이란 오늘날을 기준으로 하여 바라보기보다는 그 때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다시 말해 새로움의 평가 기준은 시대에 따라 늘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소설을 오늘날 우리들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지.

(2)문학작품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
 ☞ 글씨, 꽤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견이 반드시 옳은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향가나 고려 가요도 오늘날 사람들이 편이상 그렇게 부른 것뿐이지, 그것이 창작된 당시의 명칭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그러므로 문학 작품의 명칭이나 갈래를 창작 당시 그대로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 옛날에 창작된 문학 작품의 경우 그것을 읽고 감상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 이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면 최고 아니겠어.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아 전혀 새로운 요소라고는 없는 소설을 굳이 옛날 방식대로 신소설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개화기 소설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 또 '혈의 누' 같은 소설을 (신소설)이라고 고집하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소설이 나온다고 해도 결코(신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해조, 자유종>

1. 이 글과 같은 형식의 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사해 보자.

☞ 국어 운동의 대두와 독서 대중의 확대, 기업적 성격을 지닌 근대적 출판사의 출현, 민간 신문의 출현과 직업적 작가의 등장, 개항에 의한 서구의 근대적인 개화 사조의 수용, 일본, 중국의 문화적인 영향 등을 신소설 창작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2.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내용	이매경의 생일 잔치에 모인 네 명의 여자들이 당시 조선의 현실을 두루 살펴보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각오와 독립에 대한 염원을 확인하는 내용. 이 과정을 통해 이해조의 애국 계몽 사상이 잘 나타난다.
형식	근대 소설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당시의 토론체 소설과 서로 이어지면서 문유록과의 연관성도 보여준다.
표현	등장인물이 모두 여성이며 여권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미를 지닌다.

<신채호, 꿈하늘>

6. 꿈하늘의 문학적 성과와 한계를 비판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문학은 어떤 현실을 형상화해왔는지에 대해 토의해 보자.

☞ 당시 애국계몽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여 국권을 수호하고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과제를 문학 작품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즉 문학의 교훈적이고 공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민족의 영웅을 작품 속에서 재창조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역사, 전기 소설들을 창작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꿈하늘'은 개화기의 역사적 과제를 문학적으로 충실하게 수용하면서 반외세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문학적 심미성이 약화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작가의 사상과 정서를 지나치게 앞세움으로써 문학 작품이 주는 쾌락적 기능이 소홀하게 여겨진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 전기소설은 국권 상실에 처한 민중들에게 민족애와 저항 정신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 무정>

1.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을 각각 쓰고, 이 작품에서 두드러진 기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인식적 기능	미적 기능	윤리적 기능
'형식'이란 인물이 세 사람의 처녀와 함께 자신들과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낙후된 조선을 구하는 길은 바로 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열의에 가득 찬 형식의 열정, 그리고 네 사람이 의기 투합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 등을 독자들도 맛볼 수 있다.	한 사회의 수준은 교육, 지식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는 무엇보다도 지식을 쌓는데, 즉 대중을 교육 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이 작품은 윤리적 기능이 가장 강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2. 개인적 삶의 고양이나 사회의 공동체적 통합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이형식은 '교육'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계몽적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독자는 이 작품이 창작될 시기의 조선 사회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은 개인의 각성이 사회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야한다는 주인공의 생각을 보여 줌으로써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이 작품은 당대의 민족적 요구의 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여 보자. 또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이 놓치고 있는 민족적 과제를 지적하여 보자.

☞ 이 작품에는 민족주의 사상, 근대 문명에 대한 저항 의식, 신교육 사상 등을 바탕으로 일체의 봉건적 유습을 극복하고 민족을 계몽하려는 주제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문명개화와 민족 계몽이라는 당대의 민족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화기는 우리나라를 놓고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이 각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반외세가 또 하나의 민족적 과제로 등장했는데 이 작품은 반외세라는 과제를 놓치고 있다.

4. 이 작품이 <매일 신보>에 연재되던 때에는 하루만 연재가 안 되어도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이렇게 <무정>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은 '형식- 선형- 영체'의 삼각관계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애정 갈등을 야기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고 따라서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작품이 당대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삼각 애정 갈등과 자유연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민족주의 의식을 드러낸 점, 이전의 신소설과 다른 새로운 문제를 시도한 점,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한 점,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 등이 인기를 끈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 작품을 근대 문학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 이유를 내용과 형식면에서 정리해보자.

☞ 내용: 신교육에 대한 예찬, 자유 연애 지향, 과학의 중요성 강조, 개화, 계몽 의식
 형식: 연문 일치의 확립, 근대적 서사 구조 확립, 역순행적 구조의 사용, 삼인칭 주어의 사용

6.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개화를 통한 계몽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개화에 대한 의지는 서구의 부강이 근대화에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부강 역시 개화와 계몽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7. <혈의 누>와 무정의 문체상 특징을 비교해 보자.

☞ 혈의 누는 고전 소설의 운문투 문장에서 벗어난 산문체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문어체에서 언문일치의 문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무정'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순 국문체, 산문체, 구어체 문장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시제의 완료형과 진행형을 함께 구사하여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거리 및 진행과 정지 상태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8. 근대 문학의 관점에서 두 소설의 문체상 차이점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

☞ 두 소설은 서사적 산문 문체의 확립, 즉 운문체에서 산문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신소설이 아직 완전히 운문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문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재된 성격을 보이는데 비해, 근대 소설로 와서 순 국문체, 산문체, 구어체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산문 문체가 확립되고 있다. 이러한 문체의 차이점은 우리 근대 문학의 특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재만식, 태평천하>

* 당대의 실제 상황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시기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며 조선의 경제를 왜곡시키던 시기이고 강압적인 통치가 자행되던 시기이다. 윤 직원 영감의 말아끼도 나와 있듯이 일제의 감시와 억압이 심해져서 거리거리마다 순사가 지키고, 수십만의 군인을 통해 강압 통치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1. 이 작품과 보기의 글(탈춤)을 비교하여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토의해 보자.

☞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우선 작품의 재미를 더해주는 해학적이 표현을 들 수 있다. '태평 천하'의 화자나 화자는 모두 고사성어, 방언, 속어, 비어 등을 사용하면서 풍자성과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두 작품의 화자 모두가 공식적인 언어보다는 등장 인물의 언어 체계에 가까이 서서 텍스트와 독자(청중)의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 간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두 작품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강한 풍자가 드러나지만, 작중 인물을 대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부전'에서는 '놀부 놀'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부정적 인물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태평천하'에서는 겉으로는 부정적인 인물의 행위를 추켜올리면서, 실제로는 그 부도덕성을 풍자하는 반어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1. 이 작품에서 집중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를 통해 작가가 풍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 작품은 1930년대 말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한 집안이 벌이는 갖가지 부정적인 행태를 해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집중적인 풍자의 대상은 윤 직원 영감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식민지 현실을 전혀 영뚱한 논리로 미화하고 황금(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윤 직원 영감을 통해 그의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을 풍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식민지 현실 자체를 풍자하고 있다.

2. 이 작품의 화자와 판소리의 창자를 그 역할과 태도 면에서 서로 비교해 보자.<(홍보가)와 비교>

→<태평천하>나 <홍보가>에서 화자와 창자는 독자(청중)와 작중 인물의 중간에 위치하여 작중 인물을 평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작중 인물과 사건을 알려 주고 내용에 대해 비평). 또한 인물에 대한 조롱과 비난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두 작품이 비슷하다. 다만 <태평천하>의 화자가 사용하는 경어체 문장이 판소리 창자의 '~구나'에 비해서 독자와 화자의 거리를 좀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이때 독자는 작자와 한편이 되어 작중 인물에 대해 우위를 지키면서 그의 행위를 구경하는 관중이 되기도 하고 평가가 되기도 한다.), 작중 인물에 대한 비판이 <홍보가>에 비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라는 점에서 비교는 정도는 더 심하게 느껴진다.

3. 이 작품에서 '~입니다.'와 같은 경어체의 사용이 주는 표현상의 효과는 무엇인가? (말뚱이의 대사와 비교)

→ '~입니다', '~습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술의 대상이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경어체는 오히려 빈정거림으로 느껴진다. 말뚱이의 대사 역시 생원에게 경어체를 쓰고 있는데 실상은 생원을 놀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놀림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 특히나 '노새 원님', '말뚱이님', '생님 비뚱한 놀'과 같은 표현은 존비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둘 다 경어체가 오히려 대상을 조롱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태평천하>에서는 독자를 존대하여 독자와 화자가 한편이 되고, <봉산 탈춤>에서는 상대 인물을 높여서 말뚱이와 청중이 한편이 된다.

4. 홍부전과 이 소설을 비교해 보고 소설 갈래의 지속과 변화에 대해 말해 보자.

☞ '태평천하'는 '놀부형'이라는 고전적인 인물 전형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홍부전'과 유사성을 갖는다. 또한 서술자의 말솜씨와 풍자적 기법이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도 판소리게 고전 소설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홍부전'이 율독을 위한 운문체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비해 '태평천하'는 완전한 산문으로 정착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체의 변모를 볼 수 있다.

1. 구성 면에서 볼 때, 이 소설은 15개의 장(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는 비유적인 소재목이 붙어있다. 작품의 소재목 '망진자는 호야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보자.

☞ [이끌어주기] 이 활동을 통해 문학 작법의 기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망진자는 호야'의 뜻을 간단한 중국의 역사와 함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진나라의 도사(道士) 노생이 바다에 들어갔다 돌아와서 도참을 진언하기를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호(胡)입니다.'라고 했다. 진나라 시황은 그 말을 믿고 군사를 보내어 흉노족을 격파하고 북쪽 국경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실지로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시황의 작은 아들 호해(胡亥)의 학정(虐政)이었다.

☞ '망진자는 호야나라'의 의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믿고 있는 내부의 가족이 진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윤 직원 영감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윤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일제라는 외부의 적, 즉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믿고 아꼈던 둘째 손자 종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5.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전보'는 작품 구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설명해 보자.

☞ [이끌어주기] 이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의 내용적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소설이 1930년대 서울의 대저주 집안에서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을 그린 것이라는 전체 구도를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의 전보가 전체 작품 구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윤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며, 신선 놀음을 하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자신의 신선 놀음이 손자 종학으로 인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전보'는 윤직원 영감의 이런 기대를 극적으로 반전시킨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두려워하는 사회주의에, 가장 큰 희망이요 보람이었던 경찰 서장감 종학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안 윤직원은 격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다음은 윤직원 영감의 말이다. 이러한 말을 근거로 윤직원은 어떤 인물인지 말해 보자.

“우리만 빼 놓고 어서 망해라”
“멋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이 태평 천하에! 이 태평 천하에”

[이끌어주기] 등장 인물의 말을 통해 그 성격을 추출할 수 있다. 작품에서 윤 직원의 말과 말이 행해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게 한다.

☞ 첫 번째 윤직원의 말에서 윤직원이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말을 통해 배금주의에 철저한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하는 윤직원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없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6. 다음 표현을 중심으로 아래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어요.”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1)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에 대해 어떤 태도로 서술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이끌어주기] 이 활동은 이 소설의 문체적인 특징을 알게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작품은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풍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풍자는 주로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 윤직원 영감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듯하지만 반어적으로 비웃고 있다.

(2) 인용된 내용은 작중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논평을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체가 사용된 예를 앞에서 배운 춘향전에서 찾아보자.

[이끌어주기] 이 활동을 통해 이 소설이 판소리나 판소리게 소설의 문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춘향전을 다시 읽어보고 서술자의 논평적인 개입이 드러난 부분을 찾게 한다.

☞ '곤장 태장 치는 데는 사령이 서서 하나 둘 세건마는 형장부터 범장이라, 형리와 통인이 답답하는 모양으로 마주 었더서 하나 치면 하나 두고, 둘 치면 둘 두고,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벽에 술값 긁듯 그어 놓으니 한 일자가 되었구나'와 같은 부분에서 서술자가 개입하고 논평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재만식, 탁류>

1. 위 작품을 읽고 얻을 수 있는 어휘 등의 언어지식을 정리해 보자.

☞ 균줄하게: 균색하고 남보다 못하게
완구히:완연히
은행 빛을 추린 후에: 은행 빛을 제한 후에

2. 위 작품을 읽고 얻을 수 있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 보자.

☞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군산이다. 이 군산에서 '정 주사'가 하는 일은 '미두'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곡의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현물 없이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투기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미두'는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수탈의 방법으로 이용하던 것인데, 특히 군산지방에서 많이 행해졌다. 왜냐하면 군산은 식민지 수탈의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3. 소설의 언어적 형상화에 사용되는 다음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 ①배경의 세밀한 묘사
 - ☞ 소설은 독자에게 감정을 전달한다. 이것을 위해 대부분의 작가는 묘사를 사용한다. 묘사는 독자의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작중 인물과 그 배경을 실감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은 독자에게 작가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
- ②전형적인 인물의 설정을 위한 언어 구사
 - ☞ 전형적인 인물은 어떤 특정 부류나 계층의 보편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로 공식적 보편성을 띤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인물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속한 부류나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를 작품에 드러내야 한다.
- ③ 인물들의 언어를 대화로 재구성하기
 - ☞ 인물들이 말하는 언어를 대화로 재구성할 경우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사건의 서술
 - ☞ 소설은 구체적인 시 공간 속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한 인간이 체험한 사건은 직접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서술자에 의해 증개된다. 사건을 직접 체험하거나 타인의 체험을 관찰했거나 타인에게서 듣고 다시 옮기거나 간에 사건이 그 자체로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하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 재조정되는 것이다.

4. 위 소설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적 형상화의 방식을 찾아보자

☞ 이 부분은 정 주사의 삶과 몰락 과정이 형상화되어 있다. 식민지하의 혼탁한 물결에 무너지는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풍자와 냉소로 보여 준다. 이러한 것은 작가의 독특한 언어 해학적인 표현, 풍부한 토속어 구사로 형상화된다.

5. 위 글의 맨 마지막 문단에 사용한 표현의 미적 효과를 정리해 보자.

☞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정 주사의 성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정 주사는 담보 작고 큰돈 탐내지 못하는 규모를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이것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는 속담과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속담은 해학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대상을 날카롭게 표현하는데 훌륭한 수단이 된다. 사투리는 삶의 리얼리티를 일구어 내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작가가 속담과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을 형상화한 것은 당대의 사회 현실을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일그러진 삶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부분의 미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염상섭, 만세 전>

1. '무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만세 전>은 발표 당시 제목을 '묘지'라고 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당대의 상황을 무덤으로 인식하고 일제 강점기 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암담한 현실을 냉철히 비판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당시 식민지 치하의 조선 현실을 '무덤'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조선인들이 실질적으로 무덤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현실에 대한 어떤 항거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일제의 탄압에 순종만 하면서 '구더기'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나'가 이와 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주인공은 동경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 지식인이다. 그는 근대 합리주의의 목표였던 자아의 정립이나 개성의 실현을 중시하면서, 우리 민족도 이를 이루어야만 민족 간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여행 중에 본 것은 봉건적 무지함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식민지 지배에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모습이었다. 주인공은 이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는데, 그러한 감정 상태가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곧 ‘망할 대로 망해 버려라.’는 말이나, ‘양단 간에 끝이 나고 보면’이라는 말 속에는 이인화가 보기에 전혀 희망이 없는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있는 것이다.

2.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던 현실을 ‘무덤’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타당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그리고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주인공이 인식한 조선은 포악한 무단 정치, 가혹한 수탈, 무자각 상태의 조선 민중, 구태 의연한 가족 제도, 겉멋이 든 신여성, 친일 군상 등이 뒤섞여 우글대는 곳이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일제 강점기 하의 우리 민족의 생활을 ‘무덤’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선 민중이 처한 현실을 ‘무덤’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전히 봉건적 의식이나 제도가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반항 역시 이인화가 여행하던 1918년 겨울의 시점에서는 매우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인화의 인식으로는 곧이어 일어난 3 1운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곧 ‘구더기’로만 보였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일제히 들고 일어나 ‘독립’을 부르짖을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주인공은 자학적인 안타까움에 휘말려, 그 현실에 굴하지 않고 이겨 나가려는 민중들의 움직임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3. <만세 전> 전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묘지’였던 이유를 작가의 현실 인식 측면에서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결말은 주인공인 ‘나’가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 묘지 같은 조선을 떠나’ 경쾌한 기분으로 다시 도쿄로 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식민지 조국에 대한 현실 인식은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을 <묘지>라고 했던 작가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3·1운동 직전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포악한 일제의 무단 정치와 가혹한 수탈, 무자각 상태의 조선 민중, 구태 의연한 가족 제도, 의리 없는 친일 군상들이 뒤섞여 우글대는 ‘공동 묘지’로 파악함으로써 식민지 치하의 비참한 민족 현실과 자아 비판적 각성을 냉철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4. 주인공은 문학의 본령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주인공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문학의 사회적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예시답안】 주인공은 정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문학의 도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편지에서 주인공이 ‘우리 문학의 도(徒)’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문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문학자로서 주인공은 문학을 통해 진실에 대한 자각과 의기를 북돋으려 함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소학교 선생님이 사뵈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라는 구절이다. 이러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인공은 나라의 백성,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 나가는 자각(自覺)과 발분(發憤)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을 갖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인공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문학은 생활의 진실을 기록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들며, ‘발분(發憤)’, 즉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신념 주는 것이어야 한다.

<김유정, 굵다는 콩밭>

1. 이 소설은 1930년대 농촌의 궁핍한 현실과, 당시 불었던 ‘금광 열풍’을 주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작품 전반을 읽고 배경과 주제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소설은 ‘산미 증식 계획’ 등 일제가 실시한 정책과 기형적인 근대화 과정에 따라 날로 궁핍해져 갔던 1930년대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배경의 한 축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 말 이후 10여 년간 불었던 금광 열풍을 또다른 배경으로 삼고 있다. 워낙 궁핍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광을 발견하여 벼락부자가 되는 꿈이 주는 유혹에 강하게 사로잡히곤 했던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영식도 마찬가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써서 키운 자식 같은 콩밭을 뒤엎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식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콩밭조차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빚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영식을 마냥 풍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우둔한 영식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장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곧 이 소설의 주제는 순박한 농민조차 헛된 꿈을 추구하게 만드는 열악한 시대 상황에 대한 풍자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주제는 영식이라는 인물만 주목해서는 쉽사리 발견하기 어렵고,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김유정, 동백꽃>

1. 다음 소설을 읽고 주어진 표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빈 칸을 채워 완성해 보자.

배경	봄의 산골 동네. 대체로 가난하지만, 점순네는 마름이어서 그렇지 않다.	
인물의 성격	나	순박하고 우둔하며,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을 뜨지 않았다.
	점순	거칠지만 속으로 여린 면이 있다. 순박한 점은 ‘나’와 같다.
사건	점순이 자신의 호의 또는 사랑을 표현하려다 ‘나’의 면박을 받는다.	
이 부분의 의미	거친 면만 보이던 점순이 ‘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접근하려 하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가 거부하자 자존심이 상해서 달아나는 장면이다. 이후 점순은 ‘나’를 괴롭힘으로써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2. 이 작품의 이야기가 재미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 이 작품이 독자에게 재미를 주는 이유는 청춘 남녀의 애정이 해학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 드러나듯 점순의 애정 표현 방법, 이에 대한 나의 반응 등은 빙그레 웃음을 짓게 한다. 특히 여러 번의 닭싸움을 통해 두 사람의 갈등, 화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전개가 소설적 재미를 더해 주며, 마름의 딸과 소작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차이를 웃음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두드러진다.

소설 ‘동백꽃’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만화로 보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야기해 보자.

☞ 소설은 언어로 인물의 행동이나 몸짓 태도, 작품 속의 사건 등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자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여러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 몸짓 등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게 된다. 반면 만화로 된 것은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 몸짓 등이 그림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이러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로 만들어진 경우보다 훨씬 빨리 작품을 읽을 수 있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상상력이 제한되고 그림에 드러나는 것만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문자로 이루어진 소설은 독자의 다양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데 비해 그림으로 표현된 만화는 소설보다 상상력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3. 작품 속에서 다음 소재들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 말하여 보자.

☞ 1) 감자: 나에게 대한 점순이의 관심과 애정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내가

거절한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2) 닭싸움: 점순이가 나에게 대한 사랑을 방어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자 나와 점순이 사이를 맺어 주는 매개물이다. 이 작품의 사건 진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닭싸움이다. 그러기에 닭싸움으로 사건의 서술이 시작되었고 사건의 전개도 닭싸움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에서도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나와 점순이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지탱해 준다.

3) 동백꽃 향기: 동백꽃 향기는 점순이의 향기로서 사춘기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한편 동백꽃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자연에 조화시켜 은은하게 표현해 주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4. 갈등의 해소와 관련하여 이 소설의 소재인 동백꽃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 한창 피어 퍼뜨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히면서, ‘나’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그만 정신이 아찔해진다. 이후로 ‘나’와 점순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다. ‘나’를 온 정신이 아찔할 만큼 취하게 해서 어지러운 지경에 빠뜨린 냄새는 단순히 동백꽃의 향기만은 아니다. 동백꽃 향기와 섞인 점순이의 냄새인 것이다. 이 때 비로소 나는 점순이의 애정을 느낀다. 동백꽃은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1. 이 작품에서 ‘나’의 닭과 점순네 닭의 싸움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에서 ‘닭싸움’은 등장 인물 간의 갈등을 대리 표출하는 매개물이면서 동시에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

2. ‘나’와 점순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 죽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점순과 ‘나’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3. ‘동백꽃’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동백꽃’은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한 소재로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 상징적 의미는 등장 인물 간의 애정의 표상, 즉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4. 이 작품에서 해학성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시점 또는 화자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웃음이 나오도록 한다. 즉 화자인 ‘나’의 순박함과 우둔함에 이 작품의 해학성이 있다.

5. 만약 ‘나’가 마름의 아들이고, 점순이가 소작인의 딸로 설정되어 있다면 사건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에 대해 말해 보자.

→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은 인물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가 마름의 아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고 당시의 남아 선호 사상으로 볼 때 ‘나’는 산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것이고, 방학이 되어야 시골집에 내려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이때 마을 처녀 점순은 자신과 신분의 차이도 큰 ‘나’를 보고 좋아하는 감정을 갖지만 겉으로 내색도 못 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애매할 것이다.

6. 이 소설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문학적 전통을 고전 문학 작품에서 찾아보자.

☞ 이 작품의 인물은 보통 사람들보다 열등하게 보일 정도로 순박하다. 그래서 점순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반응하게 된다. 반면 독자는 인물들의 관계와 사건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인물들의 무지하고 엉뚱한 행동에서 웃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독자 앞에서 어리숙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인물에 의해 초래되는 유머러스한 상황과 즐거움을 해학이라고 한다. 이런 문학적 전통은 조선 후기 민요와 탈춤에서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 작품으로 ‘시집살이 노래’가 있다. 또 흥보가 심청가 등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도 존재한다.

가(김유정, 땃별) 나(박재삼, 흥부 부부상)

1. (가)와 (나)에서 가난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 (가)에서는 죽음을 앞두면서도 남편의 생활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않는 아내와, 땃별 아래 비지땀을 흘리면서 아내를 달래고 또 아내의 요청을 들어 주며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 주고자 한 남편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웃음을 물살’로써 서로를 대하고 또 ‘웃다가 서로 불쌍해 / 서로 구슬을 나누는’ 부부의 삶이 제시되어 있다. ‘가난’과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 아래에서도 서로에 대한 순박한 애정과 배려가 이들 삶의 원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극단적인 상황 아래에서도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걱정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읽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2. (가)와 (나)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삶을 토대로 문학은 삶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가치를 보여 준다는 점을 설명해 보자.

→ 문학은 과학처럼 특정 항목을 범칙화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작가 나름의 기준에 의해 선별된 가치들을 언어로써 형상화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가)와 (나)에 제시된 인물들은 비록 허구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독자에게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아끼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다. 작가의 가치는 결코 수량화되거나 최종적인 결론으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과 살아가는 방식,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등이 모두 최종적인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은 삶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가치를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김동리, 무녀도>

1. 이 작품에 묘사된 무당의 모습을 이 소설이 쓰인 당대의 현실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

☞ 당대는 기독교에 의해 우리의 전통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면서 구축되어 가고, 서구적인 것이 지신의 것으로 인식되어 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여기서 무당인 모화가 물속에 빠져 잠기는 것은 패배로서의 죽음이 아닌 것처럼, 당대 현실에서 수그러져 패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물아일체의 자연과의 합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작품 전체의 분위기에 대해 말해 보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구체적인 시공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함께 말해 보자.

→ 작품 전체적으로 퇴락하고 쇠잔한 일상을 보여 준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무당의 신변을 통해 드러나는 정황과 인물 묘사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한 묘사를 관통하고 있는 분위기는 한 마디로 퇴락이다. 이 작품에서 정확한 시공간을 알 수 없는 까닭은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의 말(북선 지방에서는 예수교라고 함태다)에서 서울 이남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시간적 배경도 기독교와 천도교를 혼동하는 모화의 모습에서 20세기 전반기로 막연하게 짐작될 뿐이다.

3. 이 작품의 등장 인물 중 모화의 사고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1)모화가 세상의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모화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샤머니즘에 기반한다. 샤머니즘은 일반적인 고등 종교에서 전제가 되는 유일신 개념이 없다. 자연의 사물마다 신성이 깃들어 있고 동시에 그 신성은 인격화되어 있다고 본다.
 (2)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정서적 체험을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자.
 →사물이 도구가 아닌 각기 존재 의미가 있는 개체가 됨에 따라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수정되고 사물의 존재 의미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게 될 것이다.

4. 모화와 옥이의 갈등이 암시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어떠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말해 보자.

→모화가 옥이에게 '너 잡귀가 들렸구나.'라 말함으로써 옥이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갈등을 예견케 한다. 다신론의 입장에서 일신론은 수많은 신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편협성을 드러내는 종교관이고, 일신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절대적인 신을 모욕하는 다신론적인 샤머니즘은 잘못된 종교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민중의 종교심을 지배했던 무속으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서구에서 유입된 기독교로 대표되는 외래문화의 이질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20세기 한국의 역사를 상징한다.

<이요석, 메밀꽃 필 무렵>

1 이 작품에서는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작품에서 당대 사회의 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 작품에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나 사건은 장날의 풍습, 장돌뱅이의 생활상 등이다. 이를 통해 아직은 근대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순수 서정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사실이 작품이 지어진 때는 일제의 식민지 정권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던 1930년대 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당시의 시대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이 작품에서 나귀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허생원과 나귀의 공통점을 들고 작가가 왜 나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이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한 나귀의 모습은 허 생원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있다. 가느라진 목 뒤 털과 개진개진 젖은 눈썹 낀 눈은 허 생원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닳아 없어진 굵은 허생원의 인생 역정을 암시한다. 또한 암나귀를 보고 발광하는 늙은 나귀의 암색은 충춧집에 대한 허 생원의 연정과 동일시되며, 피마에게 새끼를 보게 함은 정서방네 처녀와 하룻밤의 인연으로 동이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렇게 작가는 나귀를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허 생원의 인생살이는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이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배경 묘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정성을 드러내는 구절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작가가 노리는 마적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메밀꽃 필 달밤의 서정적인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와 같은 구절에서는 자연물 속에 인간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러한 배경 묘사는 허 생원과 성 서방에 처녀가 물방앗간에서 맺었던 하룻밤의 인연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이러한 배경 묘사는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옛 추억과 더불어 살아가는 떠돌이 인생의 숙명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해 준다.

4. 이 소설에서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이 소설에서 특히 중요한 시간은 밤이다. 달빛, 밤의 숨소리 등으로 표상되는 시간적 배경은 이 소설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밤길에 등장하는 달빛과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밭 등은 이 소설의 서정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허생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요석, 산>

1. '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1) 표현의 단순성-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중실의 심리와 함께 산의 풍경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표현들을 나열해 놓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2) 인물의 단순성- 이 소설의 실질적인 등장인물은 중실 혼자뿐이고 거의 주변 환경의 묘사와 중실의 심리 상태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실이라는 인물만 빼낸다면 소설이라고보다는 수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실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전형적인 인물로서 글의 갈등을 만들어 가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3) 주제의 한계성- 이 소설에서의 자연은 외경의 대상도 문명과 대립되는 예찬의 귀의 공간도 아니다. 다만 본능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하는 몰입의 대상일 뿐이다. 산에 나타난 자연에의 균형 잃은 몰입은 오히려 자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소설로서의 격마저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상, 날개>

1.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방은 둘로 나뉘어 있다. 아내가 거처하는 아랫방과 '나'가 거처하는 윗방의 분위기를 참고하여 그 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계시문에 서술된 바로 짐작해 볼 때, 아내가 거처하는 아랫방의 분위기는 밝고 화려하지만, '나'가 거처하는 윗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점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모습은 빈곤한 현대인의 양면성을 떠올리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에는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아름답게 가꾸려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속모습을 가꾸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순된 심리가 연상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개의 방은 현대인의 심리를 상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소설에서 '나'와 아내는 각각 현대인의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 내려고 했는지 말해 보자.

☞작가는 현대인의 심리 속에서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가 서로 조화되거나 일치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내면적 자아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 물론 작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 두 자아가 조화 내지 일치되는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일이 없다.'는 문장에서 보듯이, 작가는 두 자아 간의 일치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보고 있다.

3.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는 표현의 의미를 일본 감정가라는 시대 배경을 고려하여 설명해 보자.

☞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는 주인공 '나'가 비일상적 생활을 통해 삶의 무의미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아울러 그 무의미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인공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의도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행동할 수 없는 자의식의 폐쇄성을 드러내면

서 폐쇄적인 자의식이 일상의 억압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4. 이 소설에 두드러진 표현 기법과 그것이 주는 효과를 설명해 보자.

☞이 작품에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은 객관적 외부 세계보다는 주관적 내면 세계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보여지는 외부의 세계보다 내면의 의식 세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현실 세계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 자의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 이 소설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윤리적인 문제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 보자.

☞'나'라는 인물은 현실에 좌절하고 아내의 부도덕한 행위에 빌붙어 사는 인물이고 아내 또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비윤리성은 단순한 개인적인 인격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당대의 현실에 좌절한 지식인과 왜곡된 형태로 살아가는 당대 사람의 모습이다.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문제적 시각이 이러한 인물들의 비윤리적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훈, 성폭수>

1. 문학은 독자에게 교훈적, 윤리적 감동을 준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 작품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자.

☞ 문학 작품의 수용은 감동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을 읽고 느끼는 감동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은 작품의 심미적 구조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용의 재미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또 작품이 전하는 교훈성도 감동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이 감동은 구체적인 형상, 허구의 사건과 인물, 정서화된 표현과 함축적 언어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영신의 현실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봉사와 헌신, 희생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의 주된 요소이기도 하다.

<현진건, 운수좋은 날>

어느 하나의 관점을 발전시켜 이 작품에 대한 평을 써 보자.

①세계와 작품 사이에서 문학보기 -1920년대 일제 식민지 체제 하에서 극도의 궁핍함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참고 견디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도시 빈민 계층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속되고 거친 말투는 밑바닥 인생의 단면을 여과없이 반영하며, 학생이나 양복쟁이 같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신문호가 수용되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상을 일면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실주의로서 작가의 안목에서 본 현실 인식이 작품 속에 기이 배어 난다.
 ②작가와 작품 사이에서 문학보기 - 작가는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작품에 반영한다. 특히 사회 부 기자 생활을 하던 그는 누구보다 사회를 깊이 인식할 수 있었기에 관념적인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하던 당시 상황에서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불행을 고발하는데 그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아 한계가 드러난다. 현진건은 소설을 기교적으로 구성하는 데도 뛰어났으며 반어적 용법을 즐겨 썼는데 '운수 좋은 날'이 대표적 작품이다.
 ③작품 중심으로 문학보기 - 이 작품의 구조는 운수 좋은 돈도 벌고 선술집에서 주정까지 부리는 김첨지의 표면적 행동과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내면 심리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독특한 아이러니 상황을 연출한다. 반어, 즉 아이러니는 결과 실상이 반대되어 표현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상황의 아이러니에 해당한다. 전개는 시간적 단계마다 전달하고자하는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 줄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부수적 사건들을 배열하여 이야기를 꾸며나간다. 그러는 동안 김첨지의 외면적인 행동과 내면적 심리, 행운에 들뜬 즐거움과 무거운 불안감 등이 반복적으로 교차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집중되면서 극적 상황이 나타난다.
 ④독자와 작품 사이에서 문학보기 - 독자는 문학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자신의 경험 세계와 자유롭게 연결한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정도로 궁핍한 삶이 오늘날에도 가능한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주인공의 처지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 이 작품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고,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고 이처럼 재배열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하여 보자.

☞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서술하기보다는 시간을 부분적으로 역전시킴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사건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에 변화를 줌으로써 긴장감을 부여하고 작품 전체에 걸쳐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

2. 이 작품에는 추운 날씨인데도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이와 같은 배경 설정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 하루 종일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굶주린 상태에서 인력거를 끄는 김 첨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운수가 좋은 날인데도 병든 아내 때문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김 첨지의 심리 상태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화창한 것으로 배경을 설정하면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3. 김 첨지의 성격을 제시하는 데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 김 첨지는 도시 빈민이다. 가진 재산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김 첨지는 자기의 감정을 비속어로 거침없이 뱉어낸다. 김 첨지의 사회적 처지가 그의 말투에 반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 첨지가 사용하는 비속어는 하층민인 김 첨지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4. 이 소설에 형상화된 김 첨지의 '운수 좋은 날'은 삶의 어떤 측면을 보여 주는지 말해보자.

☞ 일제 강점하의 억압과 착취의 상황 아래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가난 때문에 병들어 누운 아내를 두고 돈벌이를 나가야만 하는 '김첨지'의 참담한 처지와 그에게 닥친 불행을 통해 일제 강점하의 우리 민족의 비극성을 잘 보여준다.

5. 위 작품처럼 문학 작품은 현실을 소재로 하면서도 현실보다 더 절실한 허구적 삶을 창조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구적 삶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문학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작자나 독자는 모두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문학은 현실에서 유추된 세계를 그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작자는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학이 허구적인 세계를 그린다고 해도 그것은 현실의 반영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도 우리는 '김 첨지'의 삶을 통해 당대 현실의 참혹함을 알게 되며, 아내의 비참한 죽음을 확인하고 비통해 하는 그의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게 된다.

6. 이 소설을 읽고 소설의 허구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자.

☞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꾼이다. 그는 중병을 앓고 있지만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앓아누워 있는 아내를 두고 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선다. 오래간만에 행운이 닥쳐 댋바람에 80전

이나 별게 된다. 이러한 행운이 계속 일어나지 않음은 선술집에 들러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면서 울기도 한다. 취기가 오른 김 첨지는 아내가 먹고 싶었던 설렁탕을 사 들고 집으로 간다. 거기에 숨이 끊어진 아내와 빈 젓꼭지를 빨고 있는 아이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작품 속의 김첨지가 겪는 소설 속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일제하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하층민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즉 김첨지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궁핍한 현실 속에서 하층민들이 겪고 있던 삶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는 하층민들의 다양한 삶을 바탕으로 김첨지라는 인물이 겪는 개인적 삶을 재구성해 낸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소설의 허구와 현실은 유추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설은 우연성과 개별성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 세계를 필연성과 보편성을 갖춘 허구로 재구성한 것이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의 참된 모습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이 소설에 쓰인 반어적 표현을 찾고 그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 ‘운수 좋은 날’에 쓰인 반어적 표현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 김 첨지의 말에 나타나 있다. 즉 ‘설렁탕을 사다~ 운수가 좋더니만..’ 부분이다. 이 부분은 김 첨지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날과 그의 가장 소중한 아내가 죽은 날을 대조시켜 표현함으로써 김 첨지가 놓인 비극적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도시 빈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8.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작품의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제목인 ‘운수 좋은 날’은 사실 김 첨지에게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었다. 김 첨지가 의외로 손님을 많이 태워 모처럼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된 날, 설렁탕을 사 들고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운수 좋은 날’은 표면상 의미와 실제의 의미 사이에 차이가 나는 반어적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1.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은 무엇에 기인하는지 말해 보자.
 - 남편이 공부할 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라는 개념조차도 모르는 우매한 아내가 동경에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 남편의 내면적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아내 스스로도 괴롭고 심한 단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로 보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지적 수준의 차이로 할 수 있다.
2.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판 나라에 났더라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에 들어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말하고, 그렇게 말한 의도를 설명해 보자.
 - 남편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에 고민하고 좌절하면서도 팔자 좋게 조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얻어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반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뜻을 보다 인상깊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현실에 좌절하는 자신의 신세를 반어를 통해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서울의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 이 작품은 구보가 외출해서 “전차 안→다방→경성역 대합실→다방→거리→술집→귀가”하면서까지 겪고 느낀 것을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럴 때 구보는 그 거리에서 타락한 도시의 일상적 모습을 발견한다. 이러한 우울함과 생기 없는 일상들은 당시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가질 수 없었던 도시적 삶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구보가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길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보는 당시 근대적 삶의 방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던 서울의 거리 속에서 고독을 벗어나 행복에 도달할 방법은 없는지 거리에서 만난 이들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2. 이 소설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실주의 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비교해 보자.
 - ☞ 일반적인 사실주의 소설은 소설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도 나타나며, 주인공의 행위나 사건은 인과 관계를 지닌 채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소설을 보면 이러한 소설의 구성 방식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방식과는 거리가 멀고, 인물 간의 갈등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소설의 구성과 전개 방식은 의식의 흐름 기법과 몽타주 기법이다. 구보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 서술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회상을 하는 부분이 끼여 있으며, 그가 떠올리는 생각들은 어떤 필연성보다는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르고 있다. 어떤 매개 없이 연상되는 것들이 조각조각 이어질 뿐인데, 이러한 몽타주 기법은 모더니즘의 특징이기도 하며,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기법은 근대적 일상성에 으페된 삶의 진정한 면모를 발견하려는 노력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한편 내용상 특징을 보면, 이 소설은 주인공인 ‘구보’가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눈앞에 벌어진 장면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그대로 소설화하는 창작 방법을 박태원은 ‘고현학’이라고 불렀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작가가 고현학을 구사하면서 소설을 쓰는 과정 자체가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 소설을 읽고 심리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 소설가 구보는 거리를 걷다가 아무 관련성 없이 연상되는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에 따라 분열된 자아를 느끼고 있다. 이처럼 분열된 구보의 자의식은 현실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지식인, 그리고 일상의 무의미함에 짓눌린 현대인의 고뇌를 드러낸다. 이러한 구보의 고뇌는 일제 강점기에 분열된 자의식을 갖게 된 지식인상을 보여주면서 현실과 자아의 분리, 자아의 의식 내부에서의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이 작품에서 지금까지의 소설과 다른 기법을 찾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말해 보자.

- 한 시점의 시간 동안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서술하는 몽타주 기법
- 연상 작용에 의해 시선을 좇아 외부 사물을 묘사하거나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등과 같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것
- 심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호흡이 긴 문장을 쓴 것
- 작품의 첫 소개목을 첫 문장의 첫 어절로 삼은 것
-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 소설을 쓴 것

5. 이 작품은 속물적인 일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고독한 소설가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억압되었

던 속물적인 일상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작품에서 확인하고, ‘구보’의 하루가 지니는 의미를 말해 보자.

→ 소설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 등장 인물과 실제의 소설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허구적 세계를 진실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관적 심리의 개입으로 현실에 대한 치열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희박해질 수도 있다. 다만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볼 수는 있을 것이다.

- 소설 속의 현실과 실제의 현실을 쉽게 환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써도 소설(허구)처럼 보일 것이고, 소설이라고 해도 작가의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허구적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내면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다.

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박태원 중편소설(1934), 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최인훈

(다) 검은 상처의 블루스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주제로 한 연작 소설

1. (나)와 (다)의 작가가 작품을 쓸 때 고려했을 내용을 상상해 보자.

☞ (나)의 작가는 1930년대에 쓰였던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다)의 작가는 1930년대에 쓰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1960년대 쓰인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나)와 (다)의 작가는 앞 시대에 쓰인 작품을 연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쓰는 것이기에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았을 것이다. 일단 박태원의 작품에서 제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박태원과 다른 시대 상황과 주제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와 199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각각의 작품 속에 어떻게 융해시켜 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최서해, 탈출기〉

1. 주인공이 겪었던 고난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당시의 현실을 유추해 보자.
 - ☞ “가을부터 대구어 장사를 해서 겨우 번 콩 열 말로 두부 장사를 했다. 해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와 함께 진종일 땀줄을 하였다. 그나마 두부가 쉬게 되면 온 집안이 절망하였다.” 예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는 간도로 이주해 간 조선 민중의 궁핍과 고난상이다. 식민지를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고자 간도로 이민한 사람들이 겪었던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고생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1. 이 작품이 편지글로 되어 있으면서도 상황의 객관적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김 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산문에 의한 서사적 서술 방법을 사용하여 ‘나’, ‘아내’, ‘어머니’, ‘아이’ 등의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겪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곧, 거리를 두고 인물과 사건을 산문 정신으로 서술함으로써 상황의 객관적 제시가 가능하였다.

2 이 글을 ‘무정’과 비교하여 읽고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당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 등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 이광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원인을 무지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봉건적인 관습에 얽매어 근대화를 늦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궁핍하게 되었고, 남의 나라의 식민 통치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근대적 문물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중을 계몽하는 길만이 우리가 잘살게 되고 식민 현실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서해는 현실의 궁핍함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는 계속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체제 때문이며 힘있는 자, 즉 일제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서해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전복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서해, 홍염〉

1. 이 글을 읽고 이 작품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자.

☞ ‘홍염’은 소작료 체납으로 중국인 지주 인가에게 외동딸 ‘용례’를 빼앗기고 이로 인하여 아내가 죽게 된 문 서방이 인가의 집에 방화하고 인가를 죽임으로써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살인과 방화라는 결말은 신경향파 문학 작품의 전형적인 결말 처리 방식의 특징이다. ‘홍염’은 일제의 경제 수탈로 고통을 당하고 만주, 간도 등지로 떠나야 했던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살인과 방화라는 행위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 울분 해소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살인과 방화라는 결말 처리 방식은 국권 침탈로 인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

2.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과 신문 기사를 비슷하다. 문학이 신문 기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신문 기사는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세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 혹은 세인들이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을 기사 내용으로 다룬다. 이에 반해 문학 작품은 사실 자체보다는 사건과 정황 속에 담긴 인간적 진실이나 함축적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더 비중을 둔다. 아울러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사건의 진위 여부보다는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펼쳐지는 생동감 넘치는 인물의 행동과 생각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

〈박영준, 모범 경작생〉

이 소설은 1930년대 농촌 현실을 소재로 삼은 것이다. 이 소설에 드러난 사회적 현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조사해 보자.

☞ 제시문을 보면, ‘모범 경작생’이란 호칭은 일본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충성을 다하는 매국적인 인물에게 주어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일제는 소수의 농민들에게 이런 호칭을 주어 농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우리 농촌에 강요했던 ‘산미 증산 계획’을 수행하는 한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범 경작생 제도의 뒤편에는, 이 소설에 제시된 것처럼 거지가 되어 농촌을 떠나야 했던 대다수의 농민이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농민들이 단순히 복종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시문 끝에 ‘모범 경작생’을 표시한 팻말을 찢어 놓은 장면이 그것을 알려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1930년대 당시의 농촌 현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그러한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태준, 복덕방〉

1.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과 만화에 제시된 인물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그 느낌의 차이를 말해 보자

☞ 소설에서 인물은 문자로 묘사되고 인물의 심리 또한 문자로 서술된다. 따라서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는 인물을 관념 속에서만 그려 볼 수 있는데 비해, 만화에서의 인물은 서술자의 중개 없이 직접 보여진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가 그래도 표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소설처럼 분석적인 접근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안 초시의 딸 ‘경화’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 현실에 대해 말해 보자.

☞ 소설 ‘복덕방’은 안경화라는 허세와 이기주의로 가득 찬 안 초시의 딸과 부동산 투기의 실패로 자살을 하는 안 초시의 모습을 통해 무너져 가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세영은 만화 ‘복덕방’을 통해 현대에도 여전히 허세와 이기주의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3. 문학과 만화가 어떤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지 소설과 만화를 예를 들어 말해 보자.

☞ 만화는 소설에서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나 배경에 대해 시각적인 형상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또 만화는 소설의 인물의 심리를 표정이나 그림의 분위기로 구현하는 매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화는 소설에서처럼 심도 깊은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해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므로 문학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화는 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을 없애주는 ‘보여주기’ 방식을 취하기에 서술자의 중개 없이 사건이 직접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설에서처럼 서술자가 사건을 자신의 의식으로 한 번 걸러 중개하는 방식의 만화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4. 만화가 문학에 비해 보다 높은 대중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 보자.

☞ 자료에서는 만화가 다루는 내용을 쉽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대중적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내용과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연속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만화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주제를 다룰 수 있기에 대중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김동인, 감자〉

1. 이 소설에서 복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 간다. 복녀를 이렇게 변화시킨 현실적 여건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복녀 내외는 칠성문 밖 빈민굴에 들어오게 된다. 이것은 가난과 남편의 게으름때문이다. 원래는 선비의 가통을 이는 집안의 딸이라 엄치도 알고 경우도 아는 복녀였지만, 가난 때문에 밥을 얻으러 다니기도 하고 송충이 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 몸을 팔게 된다. 이는 가난이 복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음을 보여 준다.

2. 이 작품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자의 시점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시점의 선택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해 보자.

☞ 복녀는 주어진 환경에 비극적으로 이끌려 가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서술자는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이 작품은 1925년에 발표된 소설이다. 이 작품 창작에 1920년대의 현실 상황에 대한 관심이 작용했는지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자.

☞ 1920년대에는 가혹한 일제의 식민 통치가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소작쟁의와 노동 쟁의가 끊이지 않았다. 무력으로 토지를 점령하고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모조리 장악한 일제의 수탈로 말미암아 기층 민중은 궁핍에 시달리며 끼니 조차 잇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감자’에서는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빈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감자’는 1920년대의 현실 상황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홍명희, 임궽정〉

1. 임궽정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해 보자.

☞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등 조정에서는 권신들의 권력다툼이 극에 달하고 관리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착취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2. 임궽정을 의적으로 볼 것인지, 혹은 단순한 도적으로 볼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자.

☞ 의적이라는 입장: 관군과 여러 번의 치열한 전투를 하는 등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탈하는 부패한 관리들을 징벌했기 때문에
 단순한 도적이라는 입장: 임궽정이 신분은 백성이지만 양반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곤란도 겪지 않으며 사회의 멸시에 대한 분풀이로 화적이 되었기 때문에, 임궽정의 의형제들도 사회의 억압보다는 개인적인 곤경 때문에 화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거사를 진행하다 인명을 살상하였고 관군의 토벌을 격파하는 것 외에는 한은 일 없이 풍족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3. 임궽정을 변호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자.

☞ 임궽정은 천대받는 백정의 신분으로 태어나 갖은 멸시를 당하였으며 그 멸시를 견디다 못해 도적이 되었다. 도적이 된 후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원을 징치하여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군들과 대립하였다.

4. 당대의 현실과 작품의 상황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 백성들이 도적이 된 것은 도적질을 원해서가 아니라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9권신들의 황포, 수령들의 포화한 정치 등)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상황은 임궽정이 도적이 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결국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 임궽정이라는 인물을 창조해 낸 것이다.

5. 임궽정의 주요 인물 중 실존 인물과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적 인물을 가려보고 그와 같은 허구적 인물을 창조해 낸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자.

☞ 실존인물: 임궽정, 서림
 허구적 인물: 두 인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
 작가의 의도: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신분은 백정, 서자, 역졸, 아전, 빈농, 관노 등이다. 이것으로 보아 작가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 민중들의 삶을 기록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한, 사하촌〉

1. 농민들이 이사에게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 이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해 보자. 또한, 고 서방이 야반 도주한 이유와 그 사건이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지에 대해서도 말해 보자.

☞ 농민들은 조합에서 빌린 소작료를 갚는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사는 농민들의 그와 같은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고 서방은 조합의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야반도주하였다. 농민들은 그가 도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알고 동정하는 한편, 자기들도 그와 같은 처지라는 점에 애통해 하였을 것이다.

2. 마지막에 농민들이 봉기하는 모습을 작가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말해 보자. 그리고 그것을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말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말해 보자.

☞ 남정들을 떠나보내는 아낙네들의 염려하는 모습이나 행렬 뒤를 따라가면서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것이 농민 가족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3. 이 작품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농민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리고 소설이 소외되고 폄박받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 이 작품에 그려져 있듯이 일제 강점기 농민들은 일제의 최종적인 수탈 대상이었다. 그리고 일제에 고용된 행정 관리와 일제와 결탁한 친일 사찰의 중들은 실제로 수탈을 자행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식민지의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수탈 구조 속에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처지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감당해야 했다.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 갈래이므로 현실의 어떤 부분이 모순되고 부조리한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모순과 부조리가 드러나는 현실의 결절점이 민중의 소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다.

1.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의 종류는 무엇인가

☞ 개인과 환경/ 개인과 사회 제도의 갈등

2.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 보광사의 농사 조합에 내야 할 조합비를 내지 못하게 된 상황

3.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소작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 설명과 보광사 이사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한 간접적 제시

〈조명희, 낙동강〉

1. 이 소설을 읽고 소설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자.

☞ 위의 작품에서 ‘그’의 행적은 일제 강점기하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 작가는 국원을 빼앗긴 상황 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다양한 삶의 양상을 목격하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 ‘그’라는 인물을 형상화해 낸 것이다. 즉 그는 실제의 현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에 의해 창조된 가공의 인물인 것이다.

소설의 세계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실재가 아니고 작가의 주관적 상상에 의해 창조된 허구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현실 사회의 실제 인물과 소설 속의 작중 인물은 처음부터 그 세계를 달리하고 있다. 물론 그 둘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설을 생동하게 하는 데 흠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소설이 현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진실과 논리에 의해 운행되는 하나의 우주시기 때문이다. 소설이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일상적인 현실과 다른 허구적인 현실이며 그 허구적인 현실이 리얼리티가 획득될 때 그 세계는 생동하고 살아 있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8. ‘메밀꽃 필 무렵’의 끝 부분과 ‘역마’를 비교해 보고 작품에 담긴 인생의 관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 ‘메밀꽃 필 무렵’의 주인공인 허 생원 또한 장들뱅이로 세속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소박하고 순수한 인물이다. ‘메밀꽃 필 무렵’과 ‘역마’는 두 작품 모두 인간의 삶이 운명 혹은 인연의 끈으로 강하게 매여 있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역마’에서는 운명이 인간을 속박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형상화된 반면,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남루하고 애환 어린 삶이나마 인연의 힘에 의해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인간사에 미치는 운명의 힘을 소재로 다루고 있고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운명을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염상섭, 두 파산〉

1. 교장 선생이 김옥임과 정례 모친 사이에서 취하는 행동을 통해 볼 때, 그 성격은 어떠한지 추리하여 말해 보자.

→교장 선생은 가계의 형편을 수습하려고 하는 정례 어머니에게 5만원을 빌려주고, 옥임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교장 영감에게 일임하여 원금에 빌린 이자를 합친 액수의 이자를 갚게 만든다. 이처럼 교장 선생은 옥임과 정례 어머니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득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또 빛놀이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라며 오히려 양심적인 일로 생각하는 정신적 파탄자이다.

2. 이 소설은 현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지적 서술자의 개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서술 방식은 사실주의 소설의 대표적 기법이다. 이와 같은 서술 기법이 지니는 효과는?

→간접적 제시는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므로 등장 인물과 곧바로 접할 수 있고,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작가의 의견을 자세히 나타내는 데는 불편하고 모든 것을 다 묘사할 수 없으므로 표현에도 한계가 따른다.

<적용학습>

3. 현실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두 파산’과 ‘만세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만세전’은 염상섭 초기 3부작인 ‘암야’, ‘제야’,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달리 인물의 관념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 ‘만세전’ 역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인물의 내면 못지않게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려 내는 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만세전’은 염상섭이 내면의 표현이라는 초기 경향에서 ‘두 파산’과 ‘삼대’, ‘무화과’ 등 본격적인 사실주의 소설들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 할 수도 있겠다. 소설관의측면에서 볼 때 ‘만세전’과 ‘두 파산’은 당대의 시대상을 그려 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4. ‘두 파산’에 투영된 미적 가치 지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두 파산’은 소설이란 인간의 삶과 사회의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야 한다는 소설관에 기초하고 있다. 소설이 작가의 주관적인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대상을 현실적으로 그려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주의 지향의 소설들이 모두 이 소설과 같지는 않다. 예컨대 채만식의 소설이나 카프 작가들의 소설 같이 소설 속에 현실에 대한 분명한 가치 평가를 담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학이 도덕적 가치만을 지향해야 한다면 모든 소설은 그와 같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설이 사회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야 한다면 작가의 세계관을 서술자를 통해 작품의 전면에 드러내

는 방식을 피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식일 수도 있다. 염상섭의 소설이 지향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두 파산’은 ‘정례 모친’과 ‘옥임’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는 당대의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해 일체의 평가를 거부하고 담담히 그들의 삶을 그려 내고 있을 뿐이다. 서술자는 ‘정례 모친’의 내면뿐 아니라 ‘옥임’의 내면까지도 그들의 관점을 통해 보여 준다. 독자가 초점화의 차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다르게 가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철저한 객관성을 통한 사회상의 사실적인 묘사가 ‘두 파산’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이범선, 오발탄>

1. 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오발탄이란 잘못 쓴 총알이란 뜻을 갖고 있다. 택사 운전수의 말에 의하면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와 같이 자기 갈 곳을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철호는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행위가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여동생을 양공주로 내몰거나 할 뿐이다. 양심이라는 것이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줄 등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신은 ‘오발탄’일 뿐이다. 문제는 이 상황이 자신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철호의 다음과 같은 말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에서 그 책임이 조물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독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발탄’은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소설의 말미에서도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데 “교통 신호등의 파란 불 밑으로 차는 네거리를 지나갔다.”에서 ‘네거리’라는 것도 그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 그 네거리에서 차는 방향도 알 수 없이 철호를 태우고 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발탄’은 방향성 있는 삶,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삶을 간절히 희구하는 작가 정신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 이 소설의 배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이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직후 남북 분단으로 인해 월남한 실향민들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궁핍 속에 살아가는 해방촌이다. 해방촌은 이름과는 달리 가난과 빈곤의 대명사로서 반역적 뉘앙스를 띠고 있다. 판자로 만든 집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곳에서는 골목 바깥까지 “가자, 가자”는 어머니의 쟁쟁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비참한 이 곳 해방촌으로부터 벗어나 옛날 행복했던 고향으로 되돌아가자는 월남 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염원과 절망이 철호 어머니의 입을 통해 ‘미친 짓’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설적 배경은 전쟁을 겪은 당대 사회의 비극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3. 이 소설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정리해 보자.

☞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철호와 그밖 양심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권총 강도짓을 해 버린 영호, 가난을 견딜 수 없어 양공주 노릇을 하는 명숙과 대립하는 철호, 이처럼 소설은 현실과 타협하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차라리 본질적인 것은 그런 갈등을 초래하는 시대적 현실이다.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 나타난 갈등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주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4.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의 ‘철호’의 행위를 평가하는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보자.

☞ 자신의 의견 발표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이 소설 속에 나타난 가족과 사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사랑은 승고한 것이다. 인간의 본능인 사랑이 사회적인 무제로 인해 좌절되어 버린다면 삶의 참다운 가치 하나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아무런 혈연이 없는 이복남매이지만 사랑에 대한 집착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 의해 사회 규범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사랑의 감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현실의 아픔을 현명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진실한 사랑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오성원, 유예>

1. 이 소설에서는 ‘그것뿐이다.’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어 쓰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말해 보자.

☞ ‘그것뿐이다.’라는 말에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는 내면 의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자는 비극적인 현실, 즉 전쟁의 잔인함과 참혹함에 절망한 주인공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작품의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 주인공과 나는 자신이 총살당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되뇌이는데, 이것은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나타낸 것이다. 인민군에 포로로 잡힌 몸이지만 총살당하기까지 의 한 시간의 유예 기간 동안 그는 어떠한 이념적 갈등이나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마련인 불안감과 번민을 애써 감추려는 내면의 되뇌임이라 할 수 있다.

3. 이 소설의 기법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제목인 ‘유예’는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하기까지 미루어진 주인공의 죽음의 시간, 곧 ‘한 시간’의 유보된 시간을 의미한다. 작품의 서사적 공간은 총살되기 전까지 그 한 시간에 집중되어 그때 느낀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과 과거의 회상으로 채워진다. 작자는 이 작품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전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즉 작자는 주인공이 행하는 행위나 그가 겪는 사건을 그리기보다는 주인공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파편들을 그림으로써,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작중 인물 스스로의 생각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 과거의 상황 등은 객관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작중 인물의 주관(의식) 속에서 철저히 융해되어 주관화된 채로 드러나게 된다.

(2) 이 소설에서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렇게 시점을 바꿈으로써 생겨나는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 이 작품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이 교차되면서 주인공의 의식 세계와 독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차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이 소설에서 3인칭 시점이 사용된 곳은 ‘나’가 총살당하는 부분으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사용된 곳은 주인공의 자의식이 깊어져 독백하는 부분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쓰였다.

4. 이 소설에서 죽음을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주인공은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에서 ‘나’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하여 절망하고 회의를 느끼는 인물이다.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 하고 계속 남하하다가 아군이 처형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나’는 그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하게 된다. ‘나’는 적과의 전투에서 잡힌 후 처형 당하기 한 시간 전까지의 유예시간을 거치면서, 전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 생명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나’는 결국 죽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전쟁이 가져 온 비극성보다는 자신의 ‘실존 의지’를 강조한다. 결말 부분에서 죽음을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이 지나는 마지막 의지의 신념이 죽음을 앞서 있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존재의 고뇌와 실존적 불안 의식은 전후 세대의 공통된 인식이며 심리적 갈등이다.

5. 등장 인물 ‘나’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

☞ ‘나’는 현재 북한군(공산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죽음이 한 시간 유예되어 갇혀 있다. 한 시간 후에 나는 변절이나 죽음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미 나는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상태이다.

6. 이 작품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서술 방식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이 작품은 1인칭 화자의 독백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형에 의한 진술이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화자의 내면 세계를 진술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대화나 화자의 의식 속에서 내용이 재편성되고 있으며 작중 화자가 느낀 상황에 대한 감각만이 제시 되고 있을 뿐이다. 또 사건의 전개에서 시간적 순차성이 거부되고 있다. 이러한 플롯의 독특함은 전쟁 속에서 개인이 체험하는 비극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7. 이 작품의 배경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 시간적 배경 : 6·25 전쟁 당시 겨울. 한 시간이라는 삶의 유예 기간인 현재에서 출발하여 과거와 미래를 거친 총살 직전의 현재
 공간적 배경 : 전쟁으로 폐허가 된 어느 산골 마을의 움막과 눈 덮인 대지

8. 이 작품에서 택하고 있는 시점은 무엇인가?

→ 이 작품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시켜 가면서 주인공의 의식의 세계와 독백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차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9.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으로써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 내기 위하여 시점의 변화라는 서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두 가지 시점이 함께 사용된 부분을 찾고, 그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꼭 움켜 잡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10. 이 소설 속에서 ‘흰 눈’이라는 배경 설정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자.

→ ‘흰 눈’은 이 작품 전체의 배경과 분위기를 지배하는 소재로 총살 직전의 냉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인간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얗고 차가운 눈의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비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1. 몇 분 뒤에 닥쳐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냉정하게 독백하는 ‘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 주인공 ‘나’는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사상을 전환하라는 회유를 받지만 한 마디 대답도 없이 입을 다문 채 죽음을 택한다. 이처럼 ‘나’가 죽음에 대해 한 번의 갈등도 없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이로 보아 ‘나’는 강한 신념과 투철한 행동 의지를 지닌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짧은 문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 이 작품은 호흡이 짧은 단문을 사용하여 급박한 리듬감을 전해 주고 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일 것이다. 만약 작가가 호흡이 긴 문장이나 보통의 문장을 사용했다면 인물의 심리를 문장에 실어 내려는 효과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호흡이 짧은 단문을 사용하여 급박한 리듬감을 전해 주고 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의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일 것이다. 만약작가가 호흡이 긴 문장이나 보통의 문장을 사용했다면 인물의 심리를 문장에 실어 내려는 효과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채만식, 민족의 죄인>

1. 이 소설은 광복 직후에 나온 작품으로 친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나’의 친일 행위를 무조건 비판하는 ‘윤’과 반대로 ‘나’를 옹호하는 ‘김 군’의 관점을 정리해 보고, 그에 대해 각각 비판해 보자.

☞ 이 소설에서는 ‘나’의 친일 행위를 둘러싸고, ‘나’를 옹호하는 김 군과 비판하는 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다. 세계 걱정이 없는 부잣집 아들이어서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윤은 ‘나’의 친일을 반민족적인 행위로 비판한다. 이에 대해 김 군은 친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자리를 버린다면, 당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내세워 윤의 말에 반박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윤의 행적은 사실 별다른 시련이 없었기 때문에 친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자신을 자랑하면서 친일 행위자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이 두 인물 가운데 우선 윤에 대해서는, 만약 그가 ‘나’를 공격한 이유가 민족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였다면, 그것은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말 친일 행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군의 경우는 상황 논리를 내세워 민족 보편의 윤리를 어긴 것을 옹호하려 한데 문제가 있다. 그 역시 친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친일을 하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어떤 짓이건 해도 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논리이다. 오히려 그 가난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독립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황순원 목님이 마을의 개>

1. 간난이 할아버지의 농부로서의 단순하고 소박한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말하여 보자.

☞ “동장 형제가 신둥이를 잡으려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놓고 몽둥이 하나씩을 장만해둘게 했을 때,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를 들고 따라 나섰다. 그 이유는 간난이 할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요긴한 뒷간의 거름을 축내는 신둥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 농사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농부로서 가난이 할아버지의 단순하고 소박한 성격이 나타나 있다.

2. 등장 형제의 비정한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구절을 찾아보자.

☞ 흠뻑이 아니고 새끼를 뺏다면 그게 송냥이와 붙어 된 것일 테니 그렇다면 그 이상 없는 보양제라고 하며 때려잡아 가지고는 새끼만 자기네가 차지하고 다른 고깃랑 전부 동네에서 나눠 먹으라는 것이었다.

3. 목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란 개는 거의 다 신둥이의 증손자 아니면 고손자라고 한 작가의 의도를 말하여 보자.

☞ 이 구절은 신둥이의 강한 생명력과 목님이 마음의 개들이 지닌 피의 동질성을 표현한 것이다. 가난이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목님이 마을의 개들이 지닌 피의 동질성을 강조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둥이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면 주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말하여 보자.

☞ 이 작품 속의 신둥이는 일제 강점기에 핍박과 고난 속에 허덕이며 살아온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이 작품의 주제는 신둥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끈질긴 생명력으로 극복해 온 우리 민족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을 극복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5. 다음은 신둥이에 대한 가난이 할아버지의 내적 갈등을 도식화한 것이다. 빈칸을 채워 보자.

	구체적 이유	추상적 의미
잡는다	고기맛을 보려고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
잡지 않는다	새끼 뺏 것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

6.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 구절을 찾아보자.

☞ 이 목님이 마을에 한시절 이른 봄으로부터 늦가을까지 적잖은 서복간도 이삿군이 들러 지나갔다.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상당수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만주의 서복간도로 이주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7. 이 작품의 제목과 관련 있는 ‘목님이 마을’에 함축된 의미를 말하여 보자.

☞ 목님이 마을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듯한 마을이다. 마을의 곤궁한 현실, 일제의 수탈에 견디지 못하고 이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목님이 마을은 일제 치하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징하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황순원, 학>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학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화해할 수 있는 보편적 상징으로 제시된다. 두 친구는 학을 매개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상호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려면 민족 공동체의 기반을 재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셈이다.

1. 이 작품의 ‘학’이 상징하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 보자.

☞ ‘학’이 등장하는 것은 주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부분이다. 어린 시절에 성삼이와 덕재는 학을 잡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사냥꾼이 온다는 말을 듣자 학을 놓아 주게 된다. 여기에서 ‘학’은 자유를 상징한다. 또한 학은 덕재와 성삼이의 우정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 자신들이 잡았던 학을 다시 풀어 준 것은 두 사람의 따뜻한 인간성을 보여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절정 부분에서 ‘학’은 두 사람의 우정의 회복이요,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념적이 대립을 소멸시키는 인간에 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2. 이 작품은 현재의 순차적인 전개 속에 몇 개의 과거를 삽입시키고 있는 역전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의 효과와 기능을 설명해 보자.

☞ 이 글의 서술 방식은 현재의 순차적인 진행 속에 단편적인 과거의 추억들을 삽입시키는 역전의 질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로 인해, 단순한 구성과 압축적인 서술, 간결한 대화를 통해서도 독자가 이들의 관계 및 내면 심리의 변화를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등장 인물의 행동 동기와 갈등, 내면 심리 속에서 두 삶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결말을 위한 예시, 주제의 암시, 현실과의 대조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3. 이 작품에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떠한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형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 이 작품을 우리 민족이 비극인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동족 상잔이라는 6.25 전쟁의 비극성은 거의 모든 독자들이 직접적인 체험이나 학습을 통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익혀 알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그 배경이나 상황 해설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깊은 우정, 땅에 대한 농민의 사랑들을 통해 두 사람이 이념적 갈등의 골을 넘어서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인간에 대한 작가의 신념이며, 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순수함이 남아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4. 이 작품의 가치를 인식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

☞ 인식적 가치의 측면: 삼팔선 접경의 한 마을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두 사람의 우정의 회복을 통해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해법은 인간에 대한 사랑밖에 없음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 윤리적 가치의 측면: 어린 시절의 우정과 땅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두 사람의 주인공을 통해, 세상을 ‘적자 생존’의 공간으로 보고 경쟁적으로만 살아온 내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과 인가에 대한 믿음임을 되새기게 되었다.

5. 이 작품의 서술자를 찾아보고, 이러한 서술자를 내세워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 [예시답안] 서술자는 작중 인물로 나타나는 ‘극화된 화자’와 작중 인물로 등장하지 않고 작품 외부에 등장하는 ‘극화되지 않은 화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작품은 얼핏 성삼이라는 작중 인물에 의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작품 외부에서 성삼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바로 이 작품의 서술자이다. 그는 작중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할 뿐,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 소설은 작중 상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서술자를 내세움으로써 이념 갈등이라는 미묘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결말 부분의 극적인 갈등 해소 장면 역시 이러한 시점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1. 이 작품에는 ‘송 영감’과 ‘아이’, 그리고 ‘아내’와 ‘조수’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누가 주동자이고 적대자인지 지적해 보자. 그리고 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 ‘송영감’이 주동자이고 ‘아내’와 ‘조수’적대자이다.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을 ‘송영감’에게 맞추어 그의 심리와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그냥 감은 송 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에서 송 영감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후의 문맥을 파악하여 말해 보자.

→썩은 물 같은 눈물 : 아내가 가출하고 어린 자식마저 남에게 내주고 생활인으로서 실패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뜨거운 새 눈물 : 끝내 이루지 못한 장인으로서의 예술적 혼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승화시키려는 의지이다.

2. 송 영감이 내적으로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태의 변화와 인물의 성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해 보자.

→이 소설의 갈등은 평생을 독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송 영감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한 배신감, 좌절감과 장인으로서의 투철한 예술 정신에 대한 집념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나아가 가족 제도나 장인 정신 등 전통적인 가치 질서가 날로 훼손되는 세태에 대항하는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에까지 이어져, 격변하는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3. 앵두나무집 할머니의 행동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송 영감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나, 평생을 짓고 구워왔던 독이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터져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표나게 드러내는 것 모두, 가족이나 장인 정신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는 데 대한 중요의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병든 송 영감의 처지로 보나 어린 당손이의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나 당손이를 남의 집에 보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앵두나무집 할머니의 제안은, 이런 송 영감의 성격과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하는 짧은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사라져 가는 것을 일으켜 세우려는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이라는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에 맞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송 영감’이 깨어진 독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려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발표해 보자.

(1)자신의 병으로 인한 죽음의 예감 (2)아내와 조수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독짓기의 불가능 (3)장인으로서의 자존심 (4)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좌절

→장인으로서 예술가적 혼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일생을 바쳐 온 송 영감에게 독가마 속의 깨어진 독이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꺼져가는 자신의 인생 역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작품 곳곳에 드러나는 바, 이미 쇠약한 노인의 몸을 통해 투철한 예술 정신을 담아내기에는 충분치 못한 인간 생명의 유한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망친 아내와 조수 역시 송 영감에게는 예술가적 혼을 발휘하는 일이 점점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시키는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깨어진 독과 그 의미에서 일맥 상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가마 속의 깨어진 독이란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 온 투철한 예술 정신의 결과물이며, 마지막까지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상관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송 영감이 깨어진 독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는 깨어진 독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좌절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5. 이 작품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미의식에 대해 말해 보자.

→간간이 생명을 얻은 대가로 지불해야만 하는 집착, 질투, 소유욕 등의 번뇌로부터 자유를 찾고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송 영감의 최후는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러한 결의가 평생을 투자한 장인으로서의 예술가적 혼을 이루려는 필사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비장미까지 느껴진다. 이러한 내용적 측면이 송 영감의 최후에 대한 열린 결말이라는 형식적 측면과 어우러져 작품의 비극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6. ‘송 영감’이 깨어진 독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려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발표해 보자.

- (1) 자신의 병으로 인한 죽음의 예감
- (2) 아내와 조수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독짓기의 불가능
- (3) 장인으로서의 자존심
- (4)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좌절

☞ 장인으로서 예술가적 혼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일생을 바쳐 온 송 영감에게 독가마 속의 깨어진 독이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꺼져가는 자신의 인생 역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작품 곳곳에 드러나는 바, 이미 쇠약한 노인의 몸을 통해 투철한 예술 정신을 담아 내기에는 충분치 못한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망친 아내와 조수 역시 송 영감에게는 예술가적 혼을 발휘하는 일이 점점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시키는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깨어진 독과 그 의미에서 일맥 상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가마 속의 깨어진 독이란 자신의 평생을 지탱해 온 투철한 예술 정신의 결과물이며, 마지막까지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상관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송 영감이 깨어진 독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는 깨어진 독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좌절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전광용, 사수>

1. 이 작품에서 전쟁은 ‘나’와 b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정리해 보자.

☞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 온 친구 사이였던 ‘나’와 B는 전쟁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갈등 상황으로 관계가 변하였고, 결국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와 사형수라는 극단적인 대립 관계에 서게 된다.

2. 이 작품에서 ‘나’와 B가 갈등을 일으킨 여러 장면을 찾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외면적인 원인과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근본 원인을 알아보자.

☞ ①중학 시절 선생님의 별로 서로 뺨 때리기를 하다가 둘 사이의 감정이 격양되고 결국에 ‘나’는 코피를 흘린다. ‘나’는 깊은 패배감을 느낀다.

②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력 경쟁을 벌인다. 이 또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대립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한 반에 있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경쟁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경희를 두고 대결을 벌인다. 경희의 출연 역시 두 친구가 필연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둘 사이에 경희가 등장하여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④마지막으로 ‘나’는 사수로서 B는 사형수라는 극적인 상황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나 결국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다시 한 번 패배감을 맛본다. 이는 전쟁이라는 외부 상황이 만들어 낸 갈등이다.

3 B와 경희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B가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할 때까지의 B에 대한 '나'의 심리를 정리해보자.

☞ '나'는 B와 경희의 결혼 소식을 접하고, B에게 배신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그러나 B를 이길 수 있다는 기쁨에 젖는다. 그러나 막상 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순간에 잠깐 동안이지만 '나'는 망설이게 되고 결국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친구를 죽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갈등, 절친했던 친구에게 총구를 겨누게 만든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반발감, 그리고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망설임이 순간적으로 '나'의 뇌리에 스쳤기 때문이다. '나'는 또다시 B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에 젖는다. 마지막에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만, 그것은 B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패배감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다. 게다가 B는 이미 다른 네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기에 '나'는 이것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이다.

<하근찬, 수난시대>

1. 일제 정용과 6.25전쟁으로 각각 팔과 다리를 잃은 부자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느낌을 말해 보자.

☞ · 두 사람은 개인적 잘못 없이 역사적 수난의 희생자라 가엾은 생각이 든다.
· 비극의 상처와 아픔을 서로 도우면서 극복해 가는 장면이 감동적이다.

2. 두 부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민족적 혹은 인간 보편적 삶으로 승격될 수 있는지를 말해 보자.

☞ 두 사람이 서로 도와 개천을 건너는 모습은 부자간의 일체감을 넘어 민족 단위의 결속력을 상징한다. 이 작품이 역사적 시련을 극복해 가는 민족성과 결부시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 삶에서 불행이 없을 수는 없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불행을 이겨내려는 의지임을 보여 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한다.

3. 이 글에 나오는 '외나무다리'와 '용머리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 이 작품의 결말에서 작가는 용머리재라는 자연물의 시선을 빌려 두 인물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것은 두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사실과 작품의 주제를 단일하게 결합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부자의 모습을 제시한 작가의 현실 인식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작가가 대립과 갈등의 조화로운 해결을 통해 삶의 긍정적 의미를 모색해 보려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무사히 외나무다리를 건너 새로운 삶을 사는 두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 점으로 보아 그의 가치관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작품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 이 소설의 배경은 1950년대 조그만 농촌 마을이다. 이러한 배경은 당대 농민들의 생활과 농촌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향토성이 짙은 농촌을 배경으로 그들이 겪는 민족적 수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체 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주제를 드러내는 데 배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작가는 어떤 시점을 택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 이 작품은 시점이 혼용되어 있다. 예를 들면 1인칭 시점을 보이는 부분은 '삼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 와야 일이 옳고 맞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사 되지 않았겠지.'이고 3인칭 시점을 보이는 부분은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맷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맷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맷자락 그것뿐이 어께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 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를 들 수 있다.

2. 소설 창작을 염두에 두고 '상이 군인에서 얻은 영감과 외나무다리의 결합'에서 작가가 밝히고 있는 '수난시대'의 창작 과정을 정리해 보자.

☞ 열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상이 군인을 보고 작품의 모티프를 얻었고 문예지에 실린 신기료 장수의 이야기를 읽고 작품 전체의 내용을 구상했다. 인물 구성에서는 전쟁터에서 수난을 당한 두 부자를 외나무다리고 건너게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를 불구로 만든다. 플롯 구성에서는 끝부분에 두 부자가 외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처리한다.

<현기영, 순이 삼촌>

/중앙/

1. 이 소설을 바탕으로 문학과 사회 현상의 관계에 대하여 말해 보자.

☞ 이 소설은 1970년대까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한 역사적 사건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발표 당시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얻었던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단순히 예술의 차원을 넘어 역사 기록이자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정치적 역할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광복 직후의 혼란기에 많은 사람들이 좌우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사회 전체가 공동체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도록 촉구하는 기능도 가진다. 곧 문학은 가장 현실 관여의 정도가 높은 예술인 동시에,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무엇보다도 문학이 예술로서의 자질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야 제대로 발휘되는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선부른 이데올로기 선전 도구 같은 문학은 문학 자체의 예술적 효과는 물론, 선전하고자 했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의 소설

<이호철, 판문점>

1. 진수와 여기자의 입장은 어떤 차이를 지니며 그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진수는 남북의 교류 문제가 이해 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음에 비해, 여기자는 이를 일정한 신념을 지닌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수의 견해를 패배 의식과 우유부단의 소치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여기자가 말하고 있는 일정한 신념이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의 나갈 바 큰 방향'에 대한 신념으로, 여기는 남북교류 문제란 바로 우리 민족의 나갈 바와 직결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의 명분 앞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제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수와 여기자의 입장 차이는 진수와 여기자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에서 교육 받으며 살아온 것에 기인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남한에서 살아온 인물인 진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함으로써 "부피와 용통이 있는", "전체로 균형이 잡힌" 사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회에서 살아온 여기자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호철, 닳아지는 살들>

1. 이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이 소설은 5월 어느 날 저녁부터 밤 12시까지, 어느 가정의 응접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여러 명의 가족들이 사는 이 가정은 마치 호수처럼 가라앉아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곳이다. 이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큰딸이나, 이복으로 시집간 그녀가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이들의 기다림은 정지된 순간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폐쇄, 정지된 공간으로 '호수처럼 가라앉은' 침침한 응접실이 제시된 것이다.

2. 아버지의 기억 속의 딸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 없이 딸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보자.

→아버지의 기억 속에 딸은 새하얀 깃의 세일러복을 입고, 집 안을 웅성웅성한 활기로 가득 채우는 소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딸과 함께 머리가 까만 아내가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이 가족이 누리던 행복한 나날들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 따라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헤어진 딸이 아니라, 그 딸과 아내와 헤어지기 전의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이것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쇠소리는 가족들의 정신적인 불안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쇠소리가 결말 부분에서도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정신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영희네 가족은 지금 한 집 안에 살면서도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는 등 서로간의 의사 소통은 단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 가족이 돌아 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 딸은 6 25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이 분단된 후 다시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요란한 쇠붙이 소리는 분단의 비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조시키는 장치라 이해할 수 있다.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1. '병신'과 '머저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말해 보자.

→축어적 의미로 굳이 병신과 머저리를 나누자면, 육체적 장애인이라는 의미의 병신과 정신적 장애인인 머저리를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의식의 중요한 요소인 '경험'과 '관념'이 작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형은 6 25의 아픔을 직접 체험한 존재로, 동생은 근원을 알 수 없는 환부를 갖고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형은 6 25참전 세대로서 전쟁 체험의 생생한 아픔과 현재는 의사로서 과실 치사의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반해 동생인 나는 절실한 체험도 없을뿐더러 무기력하게 자신을 포기한 존재이다.

결국 결말부에 이르러 자신의 소설을 통해 자기 연민을 벗어나 자기 치유에 도달하는 형이 자신의 환부를 알고 정신적 건강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병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환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관조 속에서 현실을 회피하는 가운데 점점 소멸의 시간들을 맞이해 가는 동생이야말로 병신과 머저리에 동시에 해당하는 인물인 셈이다.

☞ 형은 6·25 전쟁의 낙오자로서 생생한 아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팔이 떨어져 나간 김 일병을 오관모 중사로부터 구해 내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던 아픔이다. 오관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입을 줄이려고 김 일병을 죽일 결심을 할 때 형은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형은 그러한 소심한 성격을 시인이라도 하듯 소설 속에서 자신을 '참새 가슴'으로 표현하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보내 버린 동생을 보자 자신의 '참새 가슴'에 대한 한이라도 내뿜듯 '병신'이라고 말해 버린다. 따라서 '병신'은 극한 상황에서 맛보았던 환형 아픔에 대한 분출구로 소설 쓰기를 택한 형 자신을 의미하고 '머저리'는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대신 그림으로 그 욕구를 표현하고자 한 '나'를 의미한다. 즉 '병신'은 정신적 상처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형을 '머저리'는 아픔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나'를 의미한다.

2. 의사인 형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해 보자.

→형은 자신이 쓴 소설의 결말을 동료인 김 일병을 쓰아 죽인 상급자, 오관모를 자기가 직접 쓰아 죽이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현실과의 싸움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 싸우다 파괴되는 것이 훨씬 성실한 삶이라는 자기 인식에 도달한다. 환부에 대한 자기 연민과 포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써 그의 소설 쓰기는 건강한 생활인으로서의 감정을 회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형을 지금까지 지켜 온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에서 형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했던 그 관념의 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는가 말해 보자.

→전쟁 때 적진에 고립되었던 중 자신의 생존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상사, 오관모의 위협 때문에 의무병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부상당한 동료인 김 일병을 죽게 만들었던 사건은 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오랜 동안을 괴롭히는 기억이다. 이러한 기억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실수도 아니지만 어린 소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소생하고, 결국 형은 더 이상 의사로서의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이른다. 이 때 소생한 전쟁 기억이란, 말하자면 부정한 현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고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의식으로서, 자신은 이러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새로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기 회한이자 자기 연민 의식인 것이다. 형으로 하여금 의사 일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했던 '관념의 성'이란 곧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실천을 결여한 관념적인 포기인 것이다.

4. 글쓰이는 작품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글쓰이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작품을 시대적 배경과 세대 문제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즉 6·25 전쟁을 직접 체험한 형 세대와 그렇지 않은 동생 세대를 대비시킨다. 형이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에서 받은 고통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에 반해 동생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4·19 혁명이 좌절된 세대의 절망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된다.

5. 글쓰이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 실제로는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물들이 보여 준 자기 성찰적인 모습은 과거와 현재에 함몰되기 쉬운 학습자들에게 미래를 소중히 가꾸어 가기 위한 발판으로써 진지한 반성이 갖는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청준, 서편제>

1. 제집 딸의 눈을 멀게 하려고 청강수를 몰래 찍어 넣었다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 보자.

☞ 비정한 아버지이다. 범죄행위이다.
· 당시로서는 우매한 고집과 신념이 예술적 정신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사내가 말하는 원한과 한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자.

☞ 원한은 개인적인 원망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감정. 한은 스스로 안으로 사이고 참아서 가슴 속에 맺힌 감정으로 예술적으로 승화하여 풀 수 있다. 한의 소리란 바로 그러한 한을 소리로 승화한 것.

3. 이 작품의 상황 중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작품의 내적 구조를 볼 때 대도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 남도가 배경인데 왜 인물들은 사투리를 쓰지 않았을까? : 남도의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그에 맞는 문체와 방언이 쓰여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 의식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인물들의 어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
사내는 소리하는 여인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임을 짐작하면서도 왜 곧바로 물어 보지 않았을까? :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이기도 하지만, 등장 인물들이 겪었던 과거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들의 감정 상태가 선뜻 상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생각해 보자. (갈래를 바꾸어보는 창조적 재구성 활동으로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메시지 전달 방법의 차이에 주목.

구분	고려해야 할 사항
시나리오 작업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창이 들어가는 부분의 화면과 스토리 전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과거가 회상에 의해 뒤섞이게 되지만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면서도 결말을 미리부터 알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우 섭외	창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배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서구적인 이미지보다는 고전적, 한국적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촬영 장소 설정	작품 속의 소릿재 초가 주막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전통적이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의 장소가 필요할 것이다. 1950년대 분위기를 보여 줄 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음악 및 음향	작품에 나오는 판소리에 대한 고증과 연습이 필요하다. 배경 음악으로 창을 넣거나 작품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작곡, 편곡하여 삽입한다.
의상 및 분장	1950년대 의상을 고증한다. 떠돌이임을 고려하여 화려한 의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촬영 기법	사내와 소리하는 여인의 대화 진행에 따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잡아 내기 위해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현재와 과거가 오버랩되며 자연스럽게 기억을 불러 내는 느낌을 주어야 할 것이다.

☞ 소설 '서편제'와 영화 '서편제'의 차이점

구분	소설 '서편제'	영화 '서편제'
인물 제시 방법	서술자의 설명적 진술에 의한 직접적 제시	영상 장면을 통한 간접 제시
언어 표현 방법	서술자에 의한 산문 표현	대사와 지시문으로 표현
장면 제시 방법	서술자의 상세한 설명적 진술	영상으로 상황 설명

가(전광용, 깨빠란 리) 나(박경리, 불신 시대)

1. (가)와 (나)에서 각각 문제삼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무엇인가?

→(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세력을 미쳤던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고발하고 있다. (나)에서는 배금주의와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잭박에만 관심 있는 승려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다.

2. 소설이 사회 현실을 묘사하고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좋은 소설 작품은 독자에게 읽는 재미와 벽찬 감동을 준다. 또한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을 묘사하고 서술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과 치유책을 제시한다. 삶의 총체적 실상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규명되기 마련이며, 소설은 세상의 허위 의식과 싸우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복원시키고 현실 지평 위에 세우고자 하는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경리, 불신시대> <박경리, 토지>

<이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일반적으로 국문학은 우리 나라 사람에 의해 우리말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의 정서 및 생활 감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정의되곤 한다. 그런데 이 글과 같이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어로 발표한 작품을 우리문학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해 보자. 또,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작품을 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해 보자.

☞ 일반적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이 우리의 정서를 드러냈다는 점을 충족시킬 경우 국문학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소설은 우리 나라 사람이 일종의 정치적 망명으로 독일로 간 후 독일어로 우리의 정서와 풍습을 다룬 작품이다. 즉 형식적 측면에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리의 문학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쳐 아름답고 정확한 독일어 문장으로 한국의 풍습을 담아 낸 작품으로 평가받은 후, 많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단순히 독일어로 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문학이 아닌 독문학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세계에서 드물게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이 지속된 국가이다. 따라서 국문학에 한국인이라는 조건을 그다지 큰 혼란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귀화 외국인이 증가하고 또 국제 결혼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혈통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한국인이며 또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글을 쓴다 하더라도 국적이 우리의 국적이 아닌 이민자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은 문제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국문학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건으로 고정시켜 놓고 작품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문학의 범위를 유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2. 한국 문학의 개념에 관련되는 세 가지 조건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보고 '압록강은 흐른다'가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①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개념적 조건으로서 한국인이라는 주제적 조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적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표기 수단을 보면, 한국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독일어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한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리고 한글이 주요한 문학의 표기 수단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한국 한문학 작품은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의 경우 한글이 주요한 문학 작품 표기 수단으로 정착된 19세기 이후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기 어려울 것이다.
② 한글이 주요한 한국 문학 작품의 표기 수단으로 정착된 이후에 외국어로 창작된 경우에 속하는 이 작품의 경우, 한국에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발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작품의 작가가 한국인이고 작품에 담겨진 내용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꼭 한국어로 쓰여진 작품만을 한국 문학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저자가 이 작품을 독일어로 표현했다고 해도 한국인으로서 이미륵이라는 작가의 사고 과정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구비 문학을 한국 문학에 포함시키는 것은 언어문화가 표현 형식뿐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언어적 사고 관습을 포함한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독일어로 표현 했다고 해도 이 작품이 한국 어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어도 좋을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재일 교포의 일본어 작품, 연변 조선족이 쓴 한국어 작품, 러시아에 사는 고려 족이 쓴 한국어 작품, 미국 교포가 쓴 영어 작품 등을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 아무리 주체가 한국인이어도 그 작품에 담긴 내용이 한국인 고유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면 한국 문학에 넣을 수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미국 교포가 쓴 한국어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국에서 살아가는 동포의 삶의 애환 같은 문제를 다룬다면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한국인의 삶과 연관시켜 다루지 않았다면 한국 문학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표기 수단의 문제는 융통 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주체가 한국인이고, 담겨진 내용이 한국 문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면 꼭 표기 수단이 한글이어야 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

<손창섭, 비오는 날> <김승옥 무진기행>

1. 인물의 성격과 삶의 조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동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다. 오빠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며 원구에게 점차 마음을 열지만 노파에게 사기를 당한 후 행방불명된다.
동욱: 누이에게 생계를 의지하며 속마음으로는 누이를 위하지만 불구인 누이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원구: 동욱 남매에게 정을 느끼며 도와주려 하나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 한 채 그들의 불안한 삶을 동정하는 인물이다.
⇒ 동욱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감수성이 예민한 인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불구자이다. 그의 오빠 동욱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착실한 교인으로 목사 지망생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월남 이후 동욱은 미군 보대를 전전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간다. 신체 장애를 가진 동욱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며 혈육인 오빠마저도 믿지 못하는 이상 성격을 보인다. 원구는 힘겨운 생활 중에서도 동욱 남매의 처지를 동정하며 동욱과 동욱에게 위안이 되어준다. 동욱은 동욱을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욱이 그린 그림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뚜렷한 목적이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동욱과 불화한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냉소와 자조, 실의와 체념, 윤리적 파탄 등으로 얼룩진 전후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전쟁 후 힘겨운 삶을 지탱해 나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신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이다.

2. 비 오는 날의 사건 전개 과정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원구는 동욱 남매의 삶은 항상 비 오는 날과 연관지어 회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비 오는 날의 풍경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작중 인물의 심정과 더 관련되어 있다. 즉 등장 인물의 무기력, 우울, 절망 나아가서는 불구성 까지 비 오는 날의 구질구질함과 결부된다.

3. 이 소설의 배경이 주제를 타나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자.

☞ '비 오는 날'의 경우는 전쟁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에 그 분위기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고 이를 질게 물들이는 것이 '비가 온다.'는 녹녹한 배경 설정이다. 역사적 조건이 빚어 놓은 병리적 사회 현상이 개인을 압몰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그 상황 속에서 개인은 무기력하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다. 이 때 비 오는 날이란 상황 설정은 피난지에서 폐가나 다름없는 동욱의 집과 함께 주제를 더욱 선명히 부각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소설은 사회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생존의 비극성을 밀도 있게 구현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4. <김승옥 무진기행> 이 소설의 배경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 오는 날의 배경과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 '안개'는 불투명한 특성으로 인해 단절감을 느끼게 하며 잡히지도 않고 없앨 수도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그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안개를 명산물로 가진 '무진'이라는 공간은 엉뚱한 공상과 악몽으로 주인공의 의식을 피폐하게 하는 공간인 동시에 위기의 현실을 벗어나는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 '비 오는 날'의 배경이 주인공들의 피폐한 의식과 궁핍한 삶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도구임에 비교해 볼 때 '무진 기행'은 '안개'라는 배경은 단순한 자연 현상 또는 기후가 아니라 주인공의 의식의 한 모습을 드러낸 것 같다.

5. 동욱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묘사는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적어 보자. 이러한 배경 묘사를 한 작자의 의도를 이 작품이 쓰인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

☞ 동욱이 사는 집은 기울어져 가는 낡은 목조 건물로,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유리창은 깨어진 채, 가마니때기로 창을 대신하고 있는 집으로 그려진다. 이 집에 대한 원구의 인상도 '금시 대가리에 뿔이 돋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고 한다. 이렇게 음습한 느낌을 자아내는 폐가는 전후의 우리 민족의 현실의 모습 그 자체이다. 작자는 이렇게 집을 묘사함으로써 전후의 피폐한 삶의 현실과 황폐한 인간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1950년대 우리 소설에서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작품들이 실존주의 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자.

당대 현실의 이념적 허구성과 역사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 장용학의 '요한시집' '원형의 전설' 등 :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 준다
- 김성환의 '오분간' '바비도' 등 :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워 비리의 현실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인간성을 제시하였다
- 선우휘 '불꽃' :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행동적 결단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후 현실과 사회를 배경으로 기성세대의 윤리 의식과 사회 도덕적 가치 개념에 대한 반항 의식을 소

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

- 손창섭의 '혈서' '미해결의 장' '잉여인간' 등 : 전쟁이 빚어낸 왜곡된 인간상을 그려냄으로써, 전후 현실의 문제성을 고발한다
- 박경리의 '불신시대', 전광용의 '꺼삐딴 리' 등: 사회적 혼란과 윤리의 붕괴를 전면에 다루면서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현실의 비리를 비판하고 있다.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이 초래한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다루는 경향

- 유주현의 '장씨일가', 이호철의 '달아지는 산들', 최상규의 '포인트', 서기원이 '암사지도', 오상원의 '중인', 송병수의 '잔해' 등 : 전후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단면을 통해 상황의 문제성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실존주의는 1950년을 전후하여 한국에 도입되어 문학 창작과 비평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기성 사회 계급에 대한 저항이나 기계 문명에 대한 엄숙한 인간 선언으로 자리매김되는 서구의 실존주의는, 전쟁 상황과 전후의 황폐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 문학에서는 약간의 변형을 겪는다. 주로 의지와 희망을 상실한 절망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을 그려 내는 일련의 한국 실존주의 문학은 삶의 원형적인 모습을 탐색하거나 단절된 인간 관계에서 절망하는 인간을 그려 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위의 세 경향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실존주의 문학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 이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을 알아보자.

(1) 주민들의 삶의 현실에 비추어 동네의 이름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내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러한 명칭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작가의 측면에서 그 의도를 살펴볼 때, 반어적 명칭을 설정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인공의 가족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

☞ 하루 벌이 하루를 먹고 사는 저임금 노동자 계층에 속한다.

(3)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난쟁이인 아버지가 황혼기에 접어들자 더욱 힘이 딸리게 되어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위해 공장에 나가게 되었다.

(4)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굴뚝에 올라간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 아버지는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유토피아로 상징되는 달나라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아버지는 이러한 소망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데, 종이 비행기는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것으로 아버지 역시 굴뚝 아래로 몸을 던져 죽음을 선택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꿈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2.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알아 보자.

(1)작품에 나타나는 공장의 작업 환경은 어떠한가?

☞ 인쇄 공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는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며 작업하고 철공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톱밥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작업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2)공장 인물이 겪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마저 안전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가난한 환경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다.

(3) 영수의 여자 친구 명희의 죽음은 어떤 사회상을 암시하는가?

☞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나간 명희는 '자라면서 다방 종업원이 되고, 고속버스 안내원이 되고, 골프장 캐디'가 된 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끝내 음독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명희의 죽음은 편중된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점차 소외되어 자신의 삶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었던 가난한 집 아이들의 비극적 운명을 드러냄과 동시에, 당대 사회의 그릇된 윤리관과 도덕적 가치의 타락을 반영한다.

3. 난쟁이 가족을 비롯한 낙원구 행복동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도 입주권을 열값에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입주권'은 말 그대로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무리 입주권이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다. 하루 벌이 하루 먹기도 힘든 이들에게 입주권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령 입주권만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집이 철거되면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살 곳이 없다. 그러니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 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또-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4.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과 가족의 빈곤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구절을 참고하여 말해 보자.

→ 화자의 말에 의하면 난쟁이 가족의 가난은 대물림되어 온 것이다. 개인적으로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조 때에는 피지배 계층으로서 자신만의 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자본주의 시대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자본, 교육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5. 이 작품의 주요 등장 인물인 '난쟁이'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라는

구절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자.

→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라는 말은 '할아버지도 아버지처럼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느냐는 의미를 갖는 질문이다. 즉 이 작품에서 작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무력하고 가난한 도시 빈민 계층을 '난쟁이'라는 육체적 결핍을 가진 존재로 상징화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난쟁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생산, 소비 및 분배 구조 속에서 억압, 소외받는 계층의 작아진 삶을 신체적 불구성으로 보여 주는 상징적 기호이다. 이 난쟁이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 받던 민중을 대표하고 있다.

6. 이 작품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 난쟁이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이나 못 가진 자들, 작은 공은 소박한 꿈과 희망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난쟁이의 작은 공이란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가리킨다. 그런데 난쟁이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린다. 이것은 소박한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소외된 자들의 노력과 부름짓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뫼비우스의 띠> 다음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인 뫼비우스의 띠의 시작 부분이다. 수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 뫼비우스의 띠가 겹과 안 양면성을 갖는 것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을 절대시하지 말고 다양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겹과 안을 구별할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우리 사회의 부유한 부류와 가난한 부류도 근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말고 양쪽 면 모두를 볼 수 있도록 해라.

8. 이 작품에 제시된 두 아이의 우화와 '뫼비우스의 띠'의 과정에서 볼 때 꺾추와 얇은뺨이가 사나이(부동산업자)에게 한 행동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 두 아이의 우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뫼비우스의 띠' 역시 내부나 외부나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꺾추와 얇은뺨이는 범죄자, 가해자, 살인자들이다. 사나이는 범죄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사나이는 정당한 대가가 아닌 터무니없이 싼 값에 입주권을 사 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 이렇게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구별 역시 뫼비우스의 띠에서 외부와 내부의 경계처럼 모호한 것일 수 있다.

9. 이 작품에서 작가는 주인공을 장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왜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지 작가의 의도를 추리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해보자.

☞ 1970년대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시기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도시 빈민들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 도시 빈민들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채,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작가가 주인공들을 꺾추와 얇은뺨이라는 장애인으로 설정한 것은 이 같은 사회적 약자인 인물을 부각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10. 두 아이의 우화(굴뚝 청소)를 보고, 2가지 우화의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보자.

☞ <A>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내 얼굴이 더럽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더러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무관한 나만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11. 이 글의 서술자의 관점에서 '뫼비우스의 띠'의 '꺾추와 얇은뺨이'의 행동을 정리하여 요약해 보자.

정리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나는 선 목소리의 여공을 찾아보았다. 아주 못생긴 계집아이가 서 있었다. 대부분의 공장 작업자들이 그렇듯이 그 계집아이라도 유난히 누런 피부에 평면적인 얼굴, 낮은 코, 튀어나온 광대뼈, 넓은 어깨, 굵은 팔, 큰 손, 짧은 하반신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열아홉 아니면 스무 살 정도였는데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천 날을 고도에서 함께 보낸다고 해도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아이였다. 공장 노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계집아이의 생업이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자의 근육 활동뿐이었다. 공장 노동이 방청석을 메운 공원들에게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된다면 아버지도 아버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지루했다. 장내 정리가 되고 시간도 되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초조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서류 봉투를 든 변호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는 내가 모르는 그 난쟁이의 부인에게로 다가가 몇 마디 말을 하고 손을 잡아 주었다. 부인이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변호사는 방청석을 한번 돌아본 다음 법대 아래 바른쪽 그의 자리로 가 앉았다. 안경을 쓴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방청인들이 자기에게 호의와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 모양이었다. 그를 보는 순간 나의 속 밑바닥에서부터 부글부글 울화가 끓어올랐다. 중죄 재판에 변호인이 끼어들어 죄인을 싸고도는 법 제도를 왜 그대로 두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숙부 살해범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감싸면서 사건 성격을 아주 바꾸어 버리려고 했다. 담당 검사가 사태 파악을 잘못했다더라면 그의 음모에 휘말려 들 뻔했다. 검사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공익을 대표할 자질을 완전히 갖춘 사람으로 인상과 옷차림까지 깨끗했다. 재판장이 숙부 살해범인 난쟁이 큰아들의 이름, 나이, 본적, 주소, 직업을 확인해 인정 심문을 끝내자 검사가 공소장에 의한 기소 요지를 진술했는데, 그는 거기 살인, 소요, 특수 협박, 특수 손괴, 폭발물 예비, 음모 등의 죄명을 들고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까지 정확히 밝혔다.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 꺾추와 얇은뺨이는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없어서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팔았다. 사나이는 당시의 시세에 따라 시에서 주는 이주 보조금보다 만 원을 더 주고 입주권을 샀다. 물론 그는 나중에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입주권을 산 것이다. 예상은 적중해서 입주권은 이십만 원이 올랐다. 싼 값에 사 비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나중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전에 팔았던 사람이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꺾추와 얇은뺨이는 이런 억지를 부려 불법적으로 사나이를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살해한 다음 돈을 빼앗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1. 이 소설에 나타난 주된 갈등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이 작품에서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조마이섬 사람들과 외부 유력자들이다. 즉 사진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존의 터전을 위협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다.

2. 갈밭새 영감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조마이섬이 홍수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독을 허물지 않으면 섬 주민 전체가 폐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독을 쌓아 마을을 집어삼키려던 유력자의 하수인들이 독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방해한다. 이를 본 갈밭새 영감은 섬 주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죽이게 된다.

3.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자.

→서술자는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하여 주인공이 겪은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들은 바를 독자에게 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1.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 나타나는 주 대위의 행위와 개 짖는 소리가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 처음에는 주 대위의 귀에만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 개 짖는 소리는 인가가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소리가 실제로 들렸는지는 알 수 없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간절한 몸부림 때문에 주 대위가 환청을 들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주 대위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살고 싶다는 욕망을 되살리게 만든다. 김 일등병 역시 처음에는 못 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개 짖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2. 소설에는 우화적인 성격을 지닌 삽화가 등장하기도 한다. 현 중위의 꿈에 등장하는 개미 이야기를 장치한 작자의 의도를 추리해 보고 이런 삽화적 장치가 소설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자.

☞ 이 작품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은 우화 속의 개미 떼의 그것과 흡사하다. 누군가에 의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작품 속 인물들의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이 우화를 통해 이 같은 전쟁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 삽화는 이처럼 인물이 처한 상황, 인물의 심리 상태, 인물의 삶의 태도,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3. 이 소설의 첫 부분에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문제를 둘러싸고 김 일등병과 현 중위가 나눈 말들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보자.

☞ 김 일등병: 그냥 계속 능선을 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현 중위: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뭐 하러 돌아간단 말인가
 김 일등병: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 중위: 이렇게 다들 지쳐 있는데, 한 걸음이라도 단축해야지 무슨 소린가
 김 일등병: 만일 계곡을 내려갔다 나무숲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디게 되기 쉽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1. 등장 인물들의 주요 행적을 정리해 보자.

☞ 동호: 전투 상황에서 종종 허덕인다. 애인인 숙이에 대한 순결함을 지키려 한다. 순결에 대한 죄의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살한다.
 현태: 전쟁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전쟁 때 죄 없는 인명을 다. 미란과 숙이에게 임신을 시킨다. 계항의 자살을 방조한다.
 숙이: 애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 한다. 현태의 아이를 가졌으나 자신이 헤쳐 나갈 일이라고 결심한다.

2. 이 소설은 대립적인 성격의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소설의 제목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자.

☞ ‘나무들 비탈에 서다’라는 제목에서 ‘나무’란 ‘젊은 나무’이다. 하늘로 끝도 없이 솟아오를 수 있는 젊은 나무이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비탈’에 서 있다. 기울어진 비탈에서 위태롭고 제대로 자라기도 힘들다. 이 작품은 ‘나무’인 젊은이들이 6.25 전쟁에 의해 ‘비탈’에 선 듯 삶이 불안하고 고독하고 파괴되었다고 작가는 말하려는 것 같다. 즉 전쟁이 가져온 시대의 불행은 젊은이들의 방향과 좌절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3. 이 소설의 시점이 나타내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등장 인물의 외면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심리 상태도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특히 내용의 전개에 있어 전후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줘서 작품 이해에 도움을 준다.

4. 소설의 배경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체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 이 소설의 배경은 긴박하게 흐르는 전쟁터인데, 문체는 서정적이며 시적 표현에 가깝기도 하다. 이는 전쟁이 가져오는 참혹함 등 부정적인 요소와 대조되어 오히려 비극미로 표상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배경을 두드러지게 한다.

5. 〈하근찬 수난시대〉의 결말부분이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 ‘수난 시대’에 나오는 두 부자는 전쟁으로 인해 신체적인 장애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그 원인을 잘못 만난 세상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두 부자는 피해를 입은 원인을 외부 세계로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양상은 자신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반면에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등장 인물들은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가해자로 혹은 피해자로 죄 의식과 피해 의식으로 방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숙이만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6. 문체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 그 특징을 열거하고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를 말해 보자.

☞ 문체의 특징: 길쭉한 벌, 희뿌연 바위, 여름 햇살이 내리부어지고, 두꺼운 유릿속 등 함축적이고 서정적인 단어의 구사
 변함없이, 새삼스레, 엄청나게, 무수히, 모조리 등 감정을 드러내는 교묘한 부사어의 사용
 행갈이를 자주 하지 않는 긴 호흡의 문단
 작품 속에서의 의미: 행갈이를 자주 하지 않는 서술 형태는 사건 전개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사건을 외부 정경이나 분위기에 의존하고 있어 심리 묘사나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서정적이고 함축적인 문장은 그러한 배경에서 살아간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1. 등장 인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보자.

구분	나	안	시내
직업	구청병사계	대학원생	30대중반의 월부책장수
성격	이기적, 개인적	개인주의적, 엄세적	우유부단, 소심함
태도	확실한 주관 없음	단호함, 주관 강함	소극적, 비판적

2. 이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나누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직접 제시: 등장 인물인 ‘나’, ‘안’, ‘사내’ 등의 성격과 심리 등을 직접적인 설명위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간접 제시(대화): ‘나’와 ‘안’ 이 파리와 꿈틀거리는 대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작자는 작품의 분위기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접 제시(행동): 중국집에서 나온 세 사람의 인물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불 구경을 하는 부분에서 등장 인물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 작품의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부해 보자

(1)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간의 대화가 지니는 특징을 알아보자.

☞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무의미하다. 이들은 결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느꼈던 것만을 주고 받는다.

(2) 인물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서 작자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 보자.

☞ ‘안’은 ‘사내’를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나’는 ‘사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자는 인간끼리의 진정한 자아로서의 만남이 불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어두운 뒷모습과 도시적 삶의 파편화로 인한 인간 소외의 심화를 나타내려 함을 알 수 있다.

4. 서적 외판원의 죽음에 대한 두 인물의 반응을 비교해 보자.

☞ ‘나’와 ‘안’은 중년 사내가 아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주검을 실험용으로 팔고, 또 그 돈으로 술을 샴에도 불구하고, “네에에,그거 안 되셨군요.” 라고 무감각하게 말할 뿐이다. 또, 여관에 가서 각자의 방을 잡고 투숙한 다음날 아침에 죽어 있는 사내를 놔두고 성급히 거리로 나오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당대의 도시적 삶의 익명성과 파편성, 그리고 왜곡된 개인주의의 심화된 양상을 읽을 수 있다.

5. 이 소설을 읽고, 1964년 겨울, 서울의 사회상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런 사회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배경(날씨, 장소 분위기 등)을 연관지어 분석해 보자.

→1964년 겨울, 서울의 어느 골목. 우중충하게 굵은 날씨에 하늘은 낮게 깔려 알 수 없는 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나다니지 않으나 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종종걸음으로 사라진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고 그 누구와도 속내를 드러내 놓고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다.

6. 이 소설에서 등장 인물들은 익명으로 제시되고 행동한다. 만약, 여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이 서로 통성명을 하였다면 행동과 사건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를 말해 보자.

→서적 외판원 아저씨가 아침에 자살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연루될까 봐 성급히 도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7. 첫 문장은 여러 개의 구절이 겹쳐진 겹문장인데, 이렇게 긴 문장을 작품의 서두에 위치시킴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는지 발표해 보자.

→이 문장은 7개의 구절이 합쳐진 겹문장이다. 이 작품은 이렇게 긴 문장을 작품의 서두에 위치시킴으로써 암울하고 답답한 1964년의 한국 사회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이 긴 문장은 유장하고 장중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한편 답답하고 지루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 다른 부분들이 주로 대화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부분은 설명조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 1964년의 시대 상황을 선술집의 묘사를 통해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효과도 있다.

8. 이 작품에는 전시대 작가들의 문체와 구별되는 작가 특유의 문체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을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 참신하고 인상적인 어휘의 사용
 - 우리는 모든 프로그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 상징적 · 비유적 어휘의 사용
 - 방을 따로따로 쓰겠다는 것, 개미와 죽은 사내를 결부시키는 일
 ☞ 호흡이 긴 문장과 짧고 경쾌한 문장의 교차
 - 첫 부분의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와 “몹시 출근요.”, “그게 좋겠지요.” 등과 같은 대화에서 알 수 있다.

9.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 인물에 대해 말해 보자.

☞ 나: 육사 시험에 실패하고 구청 병사계에서 근무하는 스물다섯 살 난 시골 출신 사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감.
 안: 나와 동갑내기로 부잣집 장남이며 대학원생. 삶을 냉소하면서도 자기 구원을 시도하는 인물.
 사내: 30대 중반의 월부 책장수, 죽은 마누라 시체를 병원 해부 실습용으로 팔고 절망에 빠지는 인물.
 공통점: 이들 세 사람은 경력이나 신분 등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모두 1960년대 서울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소외당한 현대인을 대변해 준다. 그들은 고독과 비애,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10. 등장 인물들의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자.

☞ 이들의 대화 내용은 파리를 사랑하느냐는 것과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느냐는 것 그리고 여자 아랫배의 움직임에 이야기하고 꿈틀거리는 데모에 관한 것 등이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에는 의미가 없고 자신들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진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심각하고 진지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나 가치 지향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11.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선술집이고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다. 작가가 이러한 배경을 설정한 이유

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공간적 배경인 선술집은 1960년대 당시 근대화와 산업화의 물결로 도시화가 진행되던 공간이다. 이것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익명성을 중시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 소외가 심화되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

계절적 배경인 겨울은 모든 생명이 활동을 멈춘 계절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황량하며 쓸쓸한 계절로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작가는 1960년대 서울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소외당한 현대인의 모습을 암울한 상황으로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만남이 이루어진 '포장마차'라는 공간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보자.

☞ 이들은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포장마차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필연적인 만남의 계기는 없을 것이다. 단지 익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계기를 갖고 모이는 곳일 뿐이다 따라서 '포장마차'라는 공간은 도시적인 삶의 익명성과 만남의 우연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2) 세 사람이 같은 여관에 들어갔지만 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 '벽'은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벽을 의미한다. 작가는 인간적인 유대를 갖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현대인의 인간 관계를 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벽을 사이에 두고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간 등장 인물의 행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자살을 예견하고도 '사내'를 혼자 놓아 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나와 안은 사내의 죽음에 대해 각각 '혼자 놓아 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씨팔 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사내를 혼자 둔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을 귀찮아하며 고독과 단절에 익숙하고, 타인의 삶에 무관심하며, 거기에 간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나' '안' '사내' 등으로 익명화시킨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 보자.

☞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한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고, 기꺼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등장 인물의 이름을 불러 주지 않고 익명화시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고립된 채,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현대 도시인들의 고독한 삶을 드러낸다.

(가)무진기행 (나)관촌수필

1. (가)와 (나)의 마을을 묘사하는 시점의 차이에 대해 말해 보자.

☞ (가) 1인칭 시점, (나) 3인칭 시점

2. 어휘와 문체를 중심으로 두 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가)는 안개를 '밤 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 내놓은 입김',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등의 구절로 묘사. 감각적이면서도 몽롱한 분위기의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여 분위기나 성격, 나아가서는 주제까지도 규정.

(나)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지시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마을 동구에 있던 초가 세 채에 대한 분명한 인상을 받게 된다.

3.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나의 고향인 무진의 상징적인 의미를 안개에 착안하여 설명해 보자.

☞ 안개는 물이 되기 전의 수분의 응결 상태이다. 그러므로 물과 공기의 중간 상태이며, 이 둘의 특성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 비도 아니고 그대로의 공기도 아닌. 공중에 떠 있는 수분의 응결은 모호한, 결정 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사이에 시야를 차단시키며 불확실한 시야에 대한 추측이나 공상을 발동시킨다. 이는 작품 전체에서 순수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표현한 이상적 지향점과 자신을 속물로 만드는 현실 사이의 모호한 상태와 유사하다. 무진은 그러한 마음이 잘 표현된 공간으로 안개와 함께 이상적 지향성이 살아 있으나 그것이 속물적 세계와 섞여 있는 상태로 표현된다.

4. 이 작품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러한 시점을 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자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 자아의 성장이나 반성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 강한 호소력을 가지며 또한 개인성에 강하게 뽐내지 않아도 좋다는 강점이 있다. 주인공의 심리적인 면을 그리면서 무진 기행에서 취사선택한 제제들은 은유적으로 그 심리를 표출하는데, 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도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인 상징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를 한층 더 생략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작품보다 주인공의 심리를 추측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독자에게 상상이나 사유로 채워야 할 폭을 넓히고 있다. 비교적 자유로운 서술이 가능한 시점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다.

2) 나는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당신은 지금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정표를 본 다음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나와 당신의 심리적 거리를 설명해 보자.

☞ 당신이라는 대명사는 나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제공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마을의 초입에 서 있는 팻말은 마을을 떠나는 모두에게 보내는 전언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 무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각한 주인공에게 있어 무진을 떠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팻말을 일반적 의미에 그칠 수 없다.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반성적이고 객관적인 거리를 상상하고, 그 팻말을 양생의 소리로 읽는 것이다.

5.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쓴 편지를 인숙은 읽을 수 없고 독자만이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편지 내용을 굳이 삽입한 이유를 말해 보자.

☞ 편지 내용은 그간 주인공이 인숙에게 느꼈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랑이라는 표현과 함께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도 그러하다. 그러나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라는 말은 서울로 가는 것이 일종의 타협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는 것은 불가능하며 옛날의 저조차 오늘의 저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편지를 찢는 것은 자신의 포기에 대한 확인이며 옛날의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안이다. 독자는 이를 보면서 주인공의 심리를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무진을 떠나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의 실체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6. 이 작품에서 전보와 편지는 서로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전보와 편지의 일반적인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자

☞ 편지의 주목적은 정서와 교감을 전달하는 것이다. 전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안부 편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는 감정의 교류이며 간결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전보와는 주목적이 다르다.

2) 이 작품에서 나는 아내와는 전보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인숙과는 편지로 소통하고자 한다. (1)에서 정리한 차이점을 인용하여 아내와 인숙 사이에 놓인 나의 심리적 상태를 설명해 보자.

☞ 주인공은 인숙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동정한다. 이러한 연민은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한다. 나는 인숙과 편지를 통해 감정의 교류를 나누는 것이며 이에 반해 아내와는 전보를 통해 간결한 정보를 나눈다.

7. 이 소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인물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을 구분하고, 그 사건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생각해 보자.

☞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연상하는 무진의 모습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실제로 경험했던 과거의 무진이고, 다른 하나는 관념 속의 무진이다. 실제 경험 속의 무진이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젊은 날의 주인공의 삶을 의미한다면, 관념 속의 무진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인공이 소망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주인공 자신도 알고 있다.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8. 이 글의 배경이 되는 '무진'이 암시하는 바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고, 이것이 주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1960년대는 작가의 말처럼 안개가 낀 듯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 전쟁으로 전통적인 가치도 다 파괴되어 버린, 속물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것 같아 보이지 않던 불투명한 시대였다. 무진은 이 같은 혼돈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의 무진은 바로 이 안개가 자주 덮이는 곳으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골읍과는 거리가 먼 권태와 단조로움 절망의 추억만을 불러일으키는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동시에 안개가 걷히는 무진은 재생의 의미를 지니며 그것은 주인공의 서울로의 회귀로 나타난다.

→이 작품의 배경인 '무진'은 생동감 넘치는 시골 읍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단조로움과 권태, 무기력의 추억만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즉 무진은 안개가 자욱하여 무엇하나 뚜렷하게 볼 수 없는 공간으로 현대인이 처한 정신적 위치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개는 인간에 내재한 일탈과 욕망이라는 원초적 욕망을 끈적끈적한 습기와 함께 몽환적 이미지로써 형상화한 것이다. 상호간의 진정한 의사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점점 세속적 욕망에 젖어드는 무진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강석경, 숲속의 방〉

1. 명주와 소양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명주의 삶의 목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운동권 학생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녀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하여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공장에 취직하여 현장 체험을 갖기도 한 여대생이다. 소양의 삶은 기존의 권위와 가치를 대변하는 기성 세대인 아버지의 삶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명주의 삶의 중간에 놓여 있다. 소양은 이 중간의 회색 지대에서 방황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2. '나'와 명주의 대화에서 명주는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명주가 말하는 진실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 명주가 말하는 진실은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 잡는 일,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모순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계층을 위해 사는 일이다.

3. 이 작품은 '소양'의 삶을 언니인 '나'가 응시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같은 서술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어떤 인물의 삶을 그 인물의 입이나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과 눈을 통해 보고 제시하게 되면, 그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좀더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줄 수 있다.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소양의 삶을 미양의 눈으로 보고 말하게 함으로써 소양의 삶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4. 이 소설의 제목인 '숲 속의 방'에서 '방'은 외부와의 단절을 떠올리지만 한 편으로는 자아찾기의 공간이자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양이 찾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소양이 찾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이다. 학교를 휴학하고 호스텔을 하는 것이나 종로 통에 나가 방황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자아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에서 자살하고 마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양의 가족 3대가 특징적으로 대변하는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할머니: 식민지 체험을 갖고 있는 퇴물 유한 계층의 삶, 개인적인 건강과 사치에만 관심이 있음
아버지와 어머니:젊은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기성 세대의 삶, 보수적 현실주의자
소양: 기성 세대에서 정신적 위안을 찾을 수 없어 갈등하는 신세대의 삶

6. 1980년대라는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변하는 특징적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자.

☞ 소양: 이상 추구의 삶과 현실 안주적 삶 사이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 함
미양: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는 삶
명주: 사회 정의를 위해 사는 삶

〈박완서, 나목〉

(1)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한 것이다. 박수근의 경력에 대해 알아보고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 화가의 어떠한 삶에 대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 화가 박수근의 삶과 예술은 '서민의 화가'라고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는 곤궁한 시절에 힘겹게 살아갔던 서민화가였다. 1924년 강원도 양구 시골에서 태어난 박수근은 가난 때문에 국민학교밖에 다닐 수 없었다. 한국 전쟁 중 월남한 그는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서민들의 무던한 마음을 그렸다.

그의 부인이 쓴 '아내의 일기'를 보면 박수근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진 마음을 그려야 한다는 극히 평범한 예술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것이 있다. 화가의 이러한 마음은 곧 예술 의지가 되어 서민의 모습을 단순히 인상적으로 담아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평면화 작업을 추구하게 되었다. 거기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론적 사실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은 부동의 기념비적 형식이 되었고 가장 서민적이면서 가장 거룩한 세계를 보여 준 화가가 되었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현대적인 화가로 평가되고 있다.

(2) 고뇌 어린 예술가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인공은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옥희도는 그가 그린 그림 속의 '나목'이었다고 화자는 말한다. 이 '나목'은 처음엔 지상의 모든 삶들을 다 짓밟은 한발 속에서 괴물처럼 부유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잔인한 환경의 거친 도전을 온 몸으로 가득 끌어안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화자의 남편은 그렇게 처절한 그림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도시민적 일상 속에 있다 이 그림이 전시된 미술관 옆에의 잔디밭 벤치는 남편에게는 편안한 일상의 휴식 공간이며 가족들과 단란하게 그 휴식을 즐기고 싶은 공간인 것처럼 화자는 느낀다.

(3) <토의토론> 박수근의 그림에 나오는 나무와 여인의 이미지와 이에 대해 소설에서 묘사한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자. 소설 속의 묘사가 그림의 어떤 특징들을 연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각자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해 토론해 보자.

☞ 박수근의 그림에는 나무와 두 여인이 등장한다.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하 여인은 총총히 지나간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인의 옷차림과 거친 느낌을 주는 화면으로 인하여 토속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림에서 나무는 화면 전체를 덮고 있으며 그 나무에 대해 감상하는 이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것이다. 소설에서 화자는 그 나무를 단지 나뭇잎을 떨어뜨린 나목(裸木)이라고 생각했다. 화자에게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고목(枯木)이 아니라 단지 겨울에 잎사귀를 떨군 나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무에게서 봄의 향기를 기다리는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늠름하게, 빈틈없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무를 보며 화자는 나무가 그렇게 의연하게 서 있는 이유를 봄에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화자는 이 그림의 나무를 나목이라고 했던 것이다.

(4) 이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문학의 가치에 대해 토론해 보자.

☞ 문학은 가치 지향적 예술이다. 문학의 가치 지향적 성격은 문학이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따라서 문학은 다른 예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를 지향하고 삶의 의미를 성찰하며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성격이 짙다. 이는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 겨울 나무를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게끔 진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염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김장철 여인들의 모습에서 삶의 애환을 드러내기도 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향한 가치 지향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인물들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할머니의 머느리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방과 똑같은 크기의 방에 똑같은 물건들을 채워 졌으니 된 것 아니냐면서 할머니가 왜 늘 불만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볼 때 머느리는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반면 할머니는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적인 정에 목말라 있었고 그 같은 욕구는 늘 좌절되었다. 또 할머니는 바느질을 좋아해서 버선을 깔고 싶어했다는 머느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할 수 있고 잘 하는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흠에 땀을 흘리고 거름을 주어 기르고 싶어했다.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싶은 것이 할머니의 또 하나의 욕망이었다.

'젊은 아저씨'는 두 할머니의 자살 동기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예전의 사람 사는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건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라고 결론짓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도 역시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박완서, 배반의 여름>

1. 이 작품에 반영된 현실은 실제의 현실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어린아이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남자답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나의 눈을 거쳐서 진술되는 현실은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항상 늠름하고 씩씩하게만 보이던 아버지는 실제로는 건물 수위였으며, 아버지가 하는 훌륭하고 남자다운 일은 출근하는 회사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었다. 또 서울 시내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우리 동네는 외곽의 변두리 마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신을 둘러싼 것만이 최상이라 생각하던 어린아이의 시각과 현실적 상황의 차이라 할 수 있다.

2. 이 작품에서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어린 '나'의 정신적 성장은 유년기의 가치관이 깨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나'가 믿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위대함은 비현실적인 것이었으며, 세상은 돈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어린아이의 시각을 벗고 비로소 현실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새까만 차안의 '쪼오다'에게 과장된 경례를 하면 '쪼오다'는 그 행동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란 표정의 나를 향해 웃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환상이 깨어지는 충격을 맞본다. 이는 자기 주변의 존재가 최상의 것이며 자기가 아는 세계가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유년기를 지나 성인들의 논리인 돈, 권력 중심의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3.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면을 풍자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지나치게 화려한 옷이나 과장된 경례는 돈 많고 힘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와 그들의 대비적인 모습은 '나'의 정서적 성숙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들이 실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했다. 즉 현대 사회는 돈이나 권력과 같은 실재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다른 이를 지배하는 세계이다. 어린 '나'의 눈에 비친 이들은 '세양귀'로, 또 수위를 의식하며 우월감과 권위 의식을 충족하고자 하는 '쪼오다'로 희화화된다. 이러한 진술과 시선을 통해

서 작가는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를 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화장을 시켜 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담긴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 아들에 대한 완강한 집착의 표현이다. 아들의 뺨가루를 고향으로 부는 바람에 날려 보냈듯이 자신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저승에서나마 고향과 아들에게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머니의 한은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응축되어 온 것이다.

2. 마지막 대목에 '투병 중'이라고 말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 어머니의 병은 겉으로는 골절 후유증이지만 내면으로는 6.25 전쟁 중후군 증상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 작품에서 전쟁으로 앓고 있는 병은 6.25 전쟁의 한이다. 그 한이 어머니에게 여전하듯이 우리 사회에도 여전한 아픔의 하나로 치유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사실 '투병 중'인 것이다.

3. 제목이 된 엄마의 말뚝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 '말뚝'은 견고하게 박힌 기둥이란 뜻이다. 어머니의 가슴에 제거될 수 없을 정도로 못박혀있는 일이라 아들에의 사무친 한이다. 어머니는 한평생을 그 한으로 버티며 살아온 것이다. 엄마의 삶은 오패라는 말뚝에 묶인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윤홍길 장마>를 읽고 엄마의 말뚝과 작품의 주제를 비교해 보자.

☞ '장마'는 6.25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집안의 일을 소재로 한 것이다. 6.25 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그 비극을 논리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심층의식 또는 집단 무의식의 근원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엄마의 말뚝'은 6.25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한 가족이 겪은 전쟁 당시의 상황과 80년대의 서울을 대비하여 한 가족이 비극을 통해서 분단의 문제와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윤홍길, 장마>

1. 이 작품에서 두 할머니의 갈등의 원인과 해소 과정을 설명해 보자.

☞ 두 할머니 간의 갈등의 원인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 그러나 이 두 할머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다만 각자의 아들이 빨치산과 국군으로 대립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등의 일을 겪어 혈육의 정으로 인한 한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2. 이 작품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지 말해 보자.

☞ 구렁이의 등장과 퇴장을 통해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토속적인 민간 신앙을 매개로 하여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화해에 이르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 장면을 영화화하려한다.

1. 이 장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자.

☞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구렁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도 조용히 외할머니의 행동을 바라보고만 있다. 그리고 뱀은 대나무 숲으로 사라진다.

2.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등장 인물은 외할머니와 집안 사람들이다. 물론 주요 인물은 외할머니가 된다. 외할머니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더불어 외할머니의 행동을 바라보는 집안사람들의 놀라는 표정도 분위기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시간적 배경은 전쟁 중 여름 장마철에 비가 잠시 멈춘 어느 날이다. 공간적 배경은 여러 식구가 모여 사는 비교적 큰 집이며, 주위에 대나무 숲이 있어야 한다.

3. 장면의 전환 속도, 인물의 모습이나 동작, 화면의 색채나 음향 등은 어떠해야 할지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상해 보자.

장면의 전환 속도	'구렁이'가 나타는 장면은 비교적 빠르게,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수습하는 과정은 조금 느리게, '구렁이'가 사라지는 장면은 다시 빠르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인물의 모습이나 동작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수습하는 과정은 매우 진지하게 나타내고, 이를 놀랍게 바라보는 집안 식구들의 표정도 아울러 클로즈업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구렁이'를 보내는 외할머니의 표정은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야 한다.
화면의 색채나 음향	'구렁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종교적인 색채와 음악이 나와 긴장감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렁이'가 사라질 때에는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와야 한다.

<윤홍길, 아홉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1. 이 작품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 보자.

☞ 빛 속에서 도시 빈민들이 경찰과 대치하여 데모를 하고 있었다. 그 곳에 잘못 들어온 참외를 실은 삼륜차가 쓰러지자 데모하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떨어진 참외를 마구 먹어 뒀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2. 이 작품이 공동선의 추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토의해 보자.

☞ 생존의 문제가 절박한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앞장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나의 태도에서 개인의 자각이 공동선의 추구로 나아가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지닌 이러한 주제 의식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은 누구나 생존할 권리가 있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자각하도록 이끈다. 나아가 사회적인 모순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3. 이 작품을 감상하고 1970년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주인공의 행적을 예측해 보자.

☞ 1970년대는 산업화 시대, 경제 입국의 시대라 불릴 만큼 한꺼번에 여러 방면의 변화를 드러냈던 시기이다. 그 여파로 비인간적, 비윤리적 물가치 현상도 나타났고 이에 따라 소외되고 병든 변두리 인생의 길을 걷는 인간도 많아졌다. '아홉 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전형이다. 오로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권씨야말로 시대적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다. 출판사에 다니던 권씨는 집 장만을 해 볼 생각에 철거민 입주권을 얻어 광주 대단지에 20평을 분양 받았으나 땅 값,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권씨가 이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나왔다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살림에도 자신의 구두만을 소중하고 깨끗하게 닦는 버릇이 있다. 얼마 후 권씨 아내가 애를 순산하지 못해 수술을 받을 처지가 되었다. 권씨가 나에게 수술비용을 빌려 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했

으나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그러나 뒤늦게 자신의 이중성을 느낀 나는 권씨 아내가 수술을 잘 받도록 해 주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권씨는 그날 밤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 나는 그가 권씨임을 알아차렸고 되도록 그를 안심시키려는 쪽으로 행동했으나 정체가 탄로 난 권씨는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하면서 사라져 버린다. 아홉 켈레의 구두만 남긴 채.

〈최일남, 흐르는 북〉

1. 이 소설에서 특정한 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 현상이 인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일단 '북'으로 상징된 전통 문화가 쇠퇴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민 노인에게는 그러한 전통 문화가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지만, '궁상맞'고 '잡음으로만 들린다'고 생각하는 수경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이후 세대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문화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세대 간의 단절 현상과도 연결된다. 제시문이 짧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민 노인과 아들 내외 간에, 그리고 아들 내외와 수경 남편 간에 정신적 거리가 아주 크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다. 그리고 '테모'로 불려져 갔다는 수경의 오빠를 보면, 이 소설이 발표된 1980년대의 정치적 상황이 한 가정 을 파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각 인물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민노인: 젊은 시절- 자유로운 예술인의 삶/노년- 아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아버지로서의 삶
 민대찬: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삶
 성규: 예술가로서의 할아버지의 삶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

3. 이 작품의 제목인 흐르는 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흔히 강이나 역사를 흐른다고 표현한다. 이 작품 속에서 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 간의 단절의 원인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를 이어주는 구실도 한다. 할아버지 세대를 부정하려고 하는 아버지 세대에 의해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북을 손자가 되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단절된 듯 보이는 세대라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고통을 공유하고 이를 함께 극복해 나아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흐르는 북은 각 세 개의 상이한 가치관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염상섭의 삼대와 유사점이 많은 작품이다. 두 작품을 읽고 다음을 비교해 보자.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 (민익태, 민대찬, 민성규/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 갈등의 내용

시대적 배경

흐르는 북: 민주화 요구가 한창이던 1980년대
 삼대: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일제 강점기(1920년대)

등장인물

삼대: 조의관- 서울의 전형적 중산층으로 치부를 하고 공명심을 채우는 것으로 봉건적 가치관을 대변한다.
 조상훈- 과도기적 인물로서 위선적이고 무능한 인간으로 조의관으로부터 소외당한다.
 조덕기- 조부와 아버지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이고 조부의 가치관을 계승하려는 입장에 선다.

흐르는 북:

민익태- 조부 세대로서 예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한 인물이다.
 민대찬- 민익태의 행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버지 세대로 민 노인과 화해하려 하지 않는다.
 민성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며 세대 간 단절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한다.

갈등의 내용

흐르는 북: 개인의 삶에 충실했던 민익태와 그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려 하는 민대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며 아버지 세대와 조부의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손자 세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며 화해가 시도된다.
 삼대: 전통적 가치관에 충실한 조의관과 개화기의 과도기적 혼란상을 보이는 조상훈 세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식민지 현실에 적응하는 덕기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와 그로 인한 감정의 대립을 주요 원인으로 하며 새로운 세대에 의해 구태의연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진행됨을

5. '두 파산'과 '흐르는 북'의 등장인물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 주동인물: 정례 어머니, 민노인
 반동인물: 옥임이, 민대찬
 정적인물: 교장, 정례, 정례 아버지, 민 노인, 민대찬, 송 여사, 수경, 성규
 동적인물: 정례 어머니, 옥임이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어린이의 눈에 비친 소시민들의 평범한 삶을 살펴보자.

☞ 이 작품의 관찰자는 원미동에 이사하여 사는 일곱 살짜리 어린 소녀이다. 형제수퍼 김 반장, 몽달 씨라는 원미동 시인이라 불리는 인물과 친구하면서 소시민들의 삶의 풍속도를 관찰하는 인물이다.
 원미동 시인이라 불리는 인물은 몽달씨는 스물일곱 살의 청년으로 팔시를 받고 폭력을 당하여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 김반장은 원미동 5반 반장이며 형제수퍼 주인으로 나의 언니인 선옥에게 미련을 둔 스물일곱 살의 이기적인 소시민의 전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어린이의 눈을 통해 이유 없이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과 이 폭력에 대한 이웃의 방관을 보여준다. 선량하기 그지없는 몽달 씨가 당하는 폭행에 무관심한 김 반장의태도, 이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임을 보여준다. 즉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합법적 폭력과 이 폭력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순투성이 사회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원미동이란 문자 그대로 멀고 아름다운 동네인데, 이 글에서는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동네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원미동은 작고도 큰 세계이다.

(가)혼불 - 최명희, (나)수정가 - 판소리계 소설

1. (가)와 (나)에 담겨 있는 전통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혼불	수정가
(가)와 (나)작품의 뼈대가 되고 있는 소재 자체가 전통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가)는 혼례 문화를 그리고 있고, (나)는 고전 소설인 '춘향전'의 내용과 관련된 시인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작품에 담긴 어휘 자체가 전통적인 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가)는 혼례 문화를 그리고 있고, (나)는 고전 소설인 '춘향전'의 내용과 관련된 시인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작품에 담긴 어휘 자체가 전통적인 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저배에상호서상부하야"와 같은 표현은 혼례 문화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고, '하님과 대반', '표주박', '명주실 타래'와 같은 것도 우리 민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꼬타리의 실끝이 서로 만나 이어져 하나로 되었듯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었으니, 부디부디 한평생 번치 말고 살라는 뜻"과 같은 기술도 서양 문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화수', '우물집', '평상', '뜨락', '창창한', '서방님', '스러지는' 등등의 시어도 전통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춘향이 이 도령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이별에 대한 태도 등이 나타나 있는 부분도 한국 여인의 단아하고 조용한 삶의 자세를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2.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 지니는 가치를 말해 보자.

☞ 전통 문화를 오늘날에 되살릴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면 전통 문화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날의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면, 우리 조상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가 나아가 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전통 문화 속에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특징도 가지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특징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학 문화의 경우에 전통을 계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시를 쓰거나 판소리계 소설을 쓰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양식을 참조하여 오늘날의 독자가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새로이 변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문화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은 문화 창조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소설에서 방언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자.

☞ 지방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인물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여 인물들의 현실성을 높인다

〈신경숙, 외딴방〉

1. 서술자는 왜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글쓰기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 자신에 대한 글쓰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 이 소설의 글쓰기 방식의 특징과 그 효과를 생각해 보자.

☞ 현재의 삶을 사는 서술자가 과거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을 병치시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한편에서는 '과거의 나'의 성장 과정이 연대기적으로 펼쳐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작가가 된 '현재의 나'의 일상 생활이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작가가 된 현재의 서술자가 서술 과정에서 글쓰기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감추지 않고 노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우리에게 글쓰기의 의미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진실한 글쓰리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3. 이 글의 '소녀'를 자신이라 생각하고 소녀에게 줄 수 있는 편지를 써 보자.

☞ 각자 편지 쓰기

〈이문구,유자소전〉

1. 이 소설에서는 충청도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서술자의 목소리도 무엇인가 비웃거나 비꼬는 듯한 어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글을 다시 읽고, 아래 주어진 서술 방식의 예를 세 가지 이상씩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이 이 작품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정리해 보자.

서술 방식	예	효과
충청도 방언	·수꿨구녕내가 나서 워디 먹겼나. ·그래두 좀 구적구적헌 디서 사는 고기가 하꾸라이버덤은 맛이 낮어. ·있다면 있구 읍다면 읍는디, 들어 볼라 남?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보통것은 아닐러면그러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을 획득한다. ·주인공을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
비속어	판따라, 꼬랑지, 성깔, 처먹어 버려 등	·주인공의 처한 상황과 주인공이 대변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전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주인공을 좀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한다.
서술자의 비꼬는 어투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참는 눈치였다. ·그는 그 비단잉어 회식 사건이 있고~ 그 그룹 소속 운전사들의 정상으로부터 하야를 한 날이었다. ·총수가 큰 절마다~ 거들 생각해 보아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굽어 살피심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독자에게 현실 비판 의식과 함께 웃음을 선사한다. 즉, 풍자성을 획득하고 있다.
서술자의 전지적인 서술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엿보려고 온 것이었다. ·그 사단은 생각보다 이르게, 그리고 싱겁게 다가왔다 ·사단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총수가 큰 절마다~ 거들 생각해 보아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굽어 살피심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작가의 생각을 직접 접할 수 있어 작가와 독자의 거리가 좁혀진다 ·서술자가 전지적으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형식은 고대 소설에서 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이야기 전달 방식이 지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2. 이 작품에서 다소 변형시키기는 하였으나 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부분과 작가가 유자에 대해 느낀 점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부분이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구 분	내 용
유자가 전달하는 부분	유자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서민적이고 평범하면서도 소탈한 인물이 드러난다.
유자에 대해 느낀 점	· 우선적인 총수의 모스에 염증을 느끼고 총수의 운전석 자리를 내놓고 싶어하는 유자의 편을 들어준다. · 유자는 요령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이다.

3. 이 작품에서 주인공 유자의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찾아보고, 아래와 같이 활동해 보자.

(1) 그 상황들이 왜 웃음을 유발하는지 생각해 보자.

☞ 총수가 잉어들의 폐죽음의 원인에 대해 유자에게 묻자, 유자는 잉어들이 감기나 피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또 죽은 잉어를 어떻게 했는지 물었을 때, 먹었다고 하면서 값이 비싼 고기지만 맛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의 임금보다도 더 비싼 값을 주고 사 온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상황을 표면적으로는 긍정하는 듯 한다. 이면에서는 그러한 상충이 지닌 모순을 풍자하고 있다.

(2) 웃음을 유발하는 소설적 장치들이 우리 현대 사회나 현대인들의 어떠한 면을 비판하거나 풍자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 사람보다도 값비싼 잉어에 가치를 두는 총수를 비판하거나 풍자한다. 그럼으로써 물질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의 세태를 비꼬고 있다.

〈이문구, 관촌수필〉

1. '옹점이'의 인물됨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작가가 극화(劇化)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 '옹점이'의 삶의 내력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옹점이'는 마음씨가 너그럽고 착하며 인정과 동정심이 많다. 어른들 앞에는 소견이 넓었고, 그릇을 잘 깨는 털렁쇠였으며 참새 못지 않은 수다쟁이이기도 하다. 옹점이의 삶의 내력을 통해 드러나는 바는 그녀가 우리 주변에서 보기 드문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2. 이 소설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인물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주인공에게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지 말해 보자.

☞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 윤리의 가치를 기반으로 의지와 정신력이 강하셨던 할아버지의 인생 역정은 단단한 바위와 같았다. 할아버지는 자연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조상에 대한 긍지 속에 살다간 전형적인 이조인으로, 소년 시절 주인공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교훈은 현재의 주인공에게 있어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3.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릴 적 고향 사람들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자가 고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어떤 의의가 있을지 토론해 보자.

☞ '관촌수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록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움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라, 고향의 과거와 현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무엇이 고향을 잃게 만들었는가를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작가가 잃어버린 관촌은 한마디로 '전통적인 농촌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하루 해를 보내는 곳이며, 사람살이의 북적거림으로 가슴 설레는 곳이다. 사람 사이의 정이 있고 자연이 주는 혜택이 있고, 땅에 뿌리박은 삶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관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땅이다. 전쟁과 근대화가 그것들을 잃게 만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찬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반성의 거울이 된다. 고향을 상징하는 인물인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가부장적 질서 속의 유교 윤리가 최선의 것이며,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물질만능과 배금주의에 물들고, 정신 없이 '바깥'을 숭상하기에 바쁜 이른바 '세계화'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서, 이 전통적인 모습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향은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화려한 것이든 초라한 것이든 상관없이 '뿌리'인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결코 가지를 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정서적 고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거기서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 소설은 '일은 육친과 쫓겨난 고향에 대해 바치는 최대의 문학적 헌사(獻辭)요, 남아 길러 준 땅에 되돌리는 가장 귀한 값음'이라는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評)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

☞ 이 소설은 작자가 고향에 얽힌 추억을 회상하면서, 산업화의 과정에서 겪는 소외와 갈등, 농촌의 폐쇄와 해체 과정을 유년 시절에 경험한 농촌 공동체의 따뜻한 인정의 세계와 수시로 교제, 상응시키면서 그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반성하고 분석해 낸다. 이는 농촌 공동체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작자의 끈끈한 애정을 보여 준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5. 이 글에서 시점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인데 과거 회상의 장면에서는 일곱 살짜리 어린 아이가 서술자가 된다. 곧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린 서술자가 필요했을만한 부분은 '나'가 어렸을 때 '나'의 할아버지가 왕소나무에 얽힌 내력을 들려주시는 장면이다. 즉 어린 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움으로써 아이의 순수성을 통해 할아버지의 이야기의 신빙성을 부여하고 왕소나무의 존재 의미를 확신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수필, 희곡〉

〈피천득 수필〉

1. 이 글에서 수필의 속성을 비유한 단어나 구절들을 찾고, 그 의미를 말해 보자.

⇒ 청자연적: 수필의 소박하면서도 은은하고 오묘한 이미지
 난, 학: 수필의 담담하고 그윽한 이미지를 나타냄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 수필의 산뜻한 감성과 기지, 아름다운 이미지
 숲 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 마음의 산책: 수필에 있어서의 사색의 이미지
 약간의 무늬가 있는 비단: 작가의 개성 내지 유머와 유희가 담긴 수필의 문학적 특성

2. 이 글에서 수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찾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자.

⇒ 산문의 문학: 수필은 가로수 늘어선 포도가 될 수 있다는 점. 마음의 산책
 개성의 문학: 수필은 그 누에의 입에서 고치를 만들 듯이 써지는 것이라는 점.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라는 점
 무형식의 문학: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라는 점
 유머와 유희의 문학: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어서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는 점
 제재의 다양성: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인간성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 무엇이나 좋다는 점.

〈부끄러움〉 윤오영

1. 이 글에서 소녀가 부끄러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글에서 '상을 내갈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녀가 부끄러워한 것은 곤매가 묻은 적삼 때문이다. 이 적삼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소녀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티 한 점 없는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끄러워 할 수 있다.

2. 이 작품에서 한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하는 소재들을 찾아보자.

☞ 야트막한 산 밑에 울창졸만한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 보리가 누렇게 익은 들판, 분홍 적삼 등

3. 다음 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조가 윤오영의 '부끄러움'에 나타난 정조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지 이야기해 보자.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운사월 해 길다 피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엇듣고 있다.

☞ 부끄러움의 정서는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정서에 속한다. 조용하면서도 내밀한 감정이 부끄러움이다. '운사월'도 고요하고 내밀한 정적인 정서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신채호 낭객의 신년 만필〉

1. 이 글에서 작자가 당시 우리 문학의 일반적 경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 다만 3.1 운동 이래 가장 현저히 발달된 자는 문예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압박이 아모리 심하다 하나 아귀의 금강산 구경 같은 문예 작품의 독자는 없지 않으며, 경성의 신문지에 끼여 오는 책사 광고를 보면 다른 서적은 거의 십오 년 전 그때의 한 끝이나, 시인과 소설 선생의 작품은 비교적 다수인 듯하다.

2. '문예 운동의 폐해'에서 작자가 '조선 현재의 문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보자.

⇒ 신채호는 중국의 신문에 운동으로 인한 폐해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우리 상황과 대비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해 대비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문예 운동의 미래를 중국의 신문에 운동의 결과를 통해 유추하고 있다.

3. '예술주의의 문예와 인도주의의 문예에 어떤 것이 옳은가?'에서 작자가 생각하는 당대의 '이상적인 조선의 문예'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 당대의 이상적인 문예는 민족적 소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즉 조선의 현실을 그리는 것이며, 조선을 구하는 것이지 낭만주의나 유미주의에 침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특히 퇴폐적인 20년대의 감상주의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망각한 것으로 다른 사회 운동마저 저해하고 있다. 이런 신채호의 생각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서구 문학의 흥수 속에서 민족 문학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다. 문학이 인간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 그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문학을 위한 문학이 되고 기교를 위한 기교가 되었을 때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4. 1920년대 우리 문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서구의 문예 사조들을 조사해 보고, 그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 낭만주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서 일어난 문예 사조. 고전주의의 규범과 경직성에 반대하여 나타났다. 물개성적 전통 지향에 반발하여 감정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여 자유로운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였으며, 개성, 감정, 정서를 중요시하였다. 이성보다는 감정, 형식보다는 내용, 규범보다는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였다. 감정 표현론, 천재론을 주장하였으며 상징과 암시를 중시하였다. 대표 작가는 괴테, 실러, 위고, 워즈워스, 코울리지, 키츠, 바이런 등이다.

사실주의: 19세기 중반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진 낭만주의를 비판하여 일어난 문예 사조. 낭만주의의 환상적인 태도와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객관적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려 내려고 하는 문학, 미술상의 주의이다. 계몽주의, 근대적 합리주의, 실증주의를 정신적 배경으로 하였다.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고 한 사실주의는 소설의 창작, 비평론에 영향을 끼쳤다. 대표 작가는 발자크, 스탕달, 디킨즈, 플로베르, 도스토예프스키 등이다.

상징주의: 19세기 말에 일어나 20세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문예 사조. 사실주의에 반대하고 낭만주의를 계승하였다. 상징의 방법에 의해 형이상학적, 신비적 내용을 표현하여, 신비주의, 의지철학, 주관적 관념론 등에 바탕으로 두고 탄생하였다. 자아를 구속하는 객관적, 이성적 규범의 통제를 벗어나 꿈과 신비의 세계를 노래하고자 하고 현실을 초월한 본질의 세계에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 작가는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등이다.

자연주의: 사실주의를 더욱 극대화하여 문학에 실험 과학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던 문예사조. 즉 인생의 현실을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하는 주의를 이른다. 진화론, 환경 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 사조이다.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추악한 면을 고발하였다. 대표 작가는 졸라, 하우프트만, 드라이저 등이다.

5. 신채호의 입장에서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를 평가해 보자.

⇒ 바른 문학은 조선 혼이 담긴 조선의 문학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에는 조선의 정신은 남아 있지 않다. 서양의 낭만주의 시를 본떠 지은 이 시에 어떠한 조선의 전통과 정신이 남아 있겠는가. 이는 단지 퇴폐적인 낭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시는 우리가 바라는 예술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는 예술이 아니다.

6. 신채호는 이 글에서 상업적인 문학 작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시의 베스트셀러 문학 작품의 목록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신채호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자.

⇒ 찬성: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사의 운명을 외면한 당시의 신소설이나 신시의 경향, 즉 무조건적인 개화 사상을 예찬한 경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
반대: 당시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학이 하나의 경향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비판은 부당하다.

〈조지훈 지조론-변절자를 위하여〉

1. 이 글에서 '권모술수에 능한 직업 정치인'과 '지사적 품격의 정치 지도자'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 권모술수에 능한 직업 정치인과 지사적 품격의 정치 지도자를 구분하는 이 글에서의 잣대는 바로 지조의 유무이다. 지조를 가진 정치 지도자는 청렴하고 강직하므로 정당 운동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일한다. 그러나 지조 없는 직업 정치인은 국민의 여망을 버리고 개인의 영달과 명리를 위해 변절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긴다.

2.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글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해 보자.

⇒ 1950년대 말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의 내부적 통합을 이끌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도 집권 자유당은 독재 연장에만 집착하였고 정치 현실은 극도로 혼란하고 부패가 만연한 상황이었다. 당시 현실 속에서 과거의 친일파들은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정치 일선에서 뒷사람 행세를 했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마저 어떤 신념이나 지조도 없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절을 일삼았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를 냉철하게 비판하고,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지조와 의식을 갖춰야 함을 부르짖은 글이다. 당시의 정치의 상황이 암담했기 때문에 그의 글은 더욱 치열하게 빛을 발한다.

3. 이 글이 신문 사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지조론은 수필이지만 신변잡기나 생활의 가벼운 소재가 아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당대의 정치인에 대한 행동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와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논설문, 또는 신문 사실과 유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신문 사실과는 다르다. 신문 사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가한다. 그러나 지조론은 당대 정치 현실 전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던지는 것이지, 누구의 몇 년 어떤 행위가 변절이며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세세히 들어 따지지 않는다. 또 신문 사실은 비유를 사용하되 문학적인 실례나 사례를 잘 들지 않으나 이 글은 그것들은 사용한다. 또한 신문 사실은 사안에 대한 대안 제시도 직접적이므로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나, 조지훈의 '지조'에 관한 논변은 그 표현의 유장함과 그 가치의 불변으로 인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한 점이 신문 사실과 이 글을 구별짓는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4. 〈조지훈 봉황수〉에서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역사에 대해 '지조론'의 관점에서 비판해 보자.

⇒ 큰 나라 섬기는 일, 즉 사대의 고루한 정신 속에서 스스로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은 구한말 선비들이 지조를 너무나도 지켜서 그런 것일까? 아마 올바른 지조와 절개를 품고 있는 선비들이었다면 시대의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지조 있는 인물들이었다면 이 나라가 퇴락하여 거미줄을 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기에 무엇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또한 옛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작가가 생각하는 지조란 역동적이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딸각발이〉 이희승

전광용의 〈꺼삐딴 리〉의 주인공 '이민국'의 입장에서 '딸각발이'를 비판해 보자. 또한 '딸각발이'의 입장에서 '이민국'을 비판해 보자.

→이민국의 입장에서 : 지조나 신념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융통성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래.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때로는 신념이나 지조도 과감히 버리고 변화에 적응해야 해.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권력이 따르고 권력이 있어야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딸각발이의 입장에서 :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굳은 지조와 신념으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야말로 참다운 선비의 자세라고 생각해.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조나 신념 정도야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카멜레온 같은 기회주의자에 불과하지. 대의를 저버리고 언제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야말로 이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만 해.

〈그믐달〉 나도향

1. 다음은 김동리의 수필 '보름달'이다. 나도향의 '그믐달'과 비교하면서 아래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1) 나도향이 그믐달을, 김동리가 보름달을 사랑한다고 말한 이유를 정리해 보고, 이를 작자의 인간관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

[예시답안] 나도향이 그믐달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믐달의 여러 속성이 자신과 통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묘사된 그믐달은 외롭고 싸늘하며, 한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그믐달의 이미지가 유달리 한(恨)이 많은 자신의 삶과 통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김동리는 보름달이 주는 고전적인 완전미와 조화로운 충족감을 예찬하고, 이를 자신의 예술관과 인간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기발하고 예리한 것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성을 지향하고 그 깊은 경지에 이르려는 작자의 인생관과 예술관을 엿볼 수 있다.

(2) 두 글을 활용하여 '수필은 개성의 문학'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해 보자.

[예시답안] 두 글은 '달'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나도

향이 좋아하는 달은 그믐달이며, 김동리가 좋아하는 달은 보름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그믐달을 두고도 나도향은 한스럽고 애처로워 보이는 그믐달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김동리는 그믐달을 병적인 것, 불완전한 것, 단편적인 것, 첨단적이고 야박한 것으로 보고 일정한 거리를 둔다. 이러한 차이는 작자의 인간관이나 인생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필에는 작자의 인생관이나 사상, 감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수필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 다음 수필을 읽고,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주제의 참신성을 '달'에 부여된 전통적인 의미와 관계지어 토의해 보자.

☞ 전통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달의 형태는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보름달은 '만월(滿月)'이라 해서, 완전함, 충족감, 다산성 등을 의미하였다. 우리의 세시 풍속을 보더라도, 정월 대보름과 추석의 보름달은 만사형통과 완성, 풍요 등을 의미했다. 어촌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때를 '사리'라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로 간주하였고, 반대로 그믐달이 뜰 때는 '조금'이라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 시기로 간주하였다. 이런 점은 우리 고전 문학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정음사>라는 백제 노래에서는 보름달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어 주는 존재로 드러나 있으며, <원왕생가>에서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믐달은 쇠망이나 흉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서양의 이야기에서는 늑대나 흡혈귀가 보름달이 뜰 때 나타나는 것에 반해,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 여우나 귀신은 보름달이 뜨면 나타날 수 없고 그믐달이 뜰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수필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그믐달을 찬양하고 있어서 이채를 띤다. 곧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과는 상반되게 주제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무작정 전통에 맞서면서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밝고 성장하는 것을 찬양할 때, 오히려 이 글을 쓴 작가는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상처를 입은 이들도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수필에서 그믐달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달이며, 따라서 그런 그믐달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작가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구두〉 계몽목

1. 이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므로 사소한 일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2. 이 작품은 '사건의 원인 - 사건의 발달 - 사건의 경과 - 자신의 감회'의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사건 서술 과정이 소설적인 극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소설'로 보지 않고, '수필'로 보는 이유를, 소설과 수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이 글을 수필로 보는 이유는 결말 부분에 작가의 견해가 뚜렷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수필은 서술의 측면에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내가 읽은 것이나 보고 들은 것을 삽화적으로 나열하고, 거기에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찾아 내어 표명하는 문학이다. 소설은 수필과는 달리 나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의 인물들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이야기이다.

〈유안진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

1. 이 수필의 핵심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비유어들의 의미를 찾아 정리하고 유사한 비유적 의미를 가진 어휘들을 조사해 보자.

구분	내포적 의미	유사한 의미로 쓰인 다른 비유어
흙과 나무	인정 많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협동하는 사회 분위기를 의미한다. 자애와 포용과 용서의 마음을 상징한다.	농경 시대, 새축, 새움
쇠붙이와 강철	범죄가 비일비재하고 서로 경쟁하는 포악스럽고 잔인한 사회상을 의미한다. 차갑고 모질고 단단한 심성, 냉혹한 마음을 나타낸다.	플라스틱, 기계시대, 언 땅, 언 강물

2. 이 글은 봄을 맞이하며 쓴 글이다.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이 글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히 말해 보자.

☞ 새 봄이 되어 언 땅과 언 강물이 녹고, 새축과 새움이 돌아나듯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사라지고 차가운 마음 대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애와 포용과 용서의 마음이 넘쳐나는 인정 많은 사회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3. 이 글의 글쓴이가 각박한 현대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강철과 쇠붙이의 시대에 예술이 나무와 흙의 심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희곡/시나리오

〈오영진 시집가는 날(맹진사댁 경사 변형)〉 〈오영진 살아있는 이증생 각하〉

이 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조사해 보자.

⇒ 해방 직후의 사회적, 정치적 쟁점 중 대표적인 것이 반민족적 친일파의 청산문제였다. 사회 한편에서는 반민특위 등을 구성하여 친일 잔재를 청산하려는 사회,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친일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몸을 사리고 있었지만 혼란의 와중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재기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또 남북한으로 갈린 사상의 문제도 당시 커다란 사회, 정치적 쟁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영 오광대〉

여기에는 구체적인 무대가 설치되지는 않지만 독자들은 상상 속에서 연극 무대를 만든다. 독자들이 어떻게 무대를 연상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 극중의 핵심 사건은 양반들이 말뚝이를 급히 찾고, 이에 대해 말뚝이는 역정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극중 장소는 양반집 사랑 또는 나들이길을 떠난 양반들의 숙소일 수 있다. 이처럼 극중 장소가 파악되는 순간 관객들은 연극 모태를 상상 속에서 만들 수 있다.

3. 이 작품을 연극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경우 배우가 탈을 쓴다는 특수한 조건은 있으나 역시 가장한 배우이며 첨예한 갈등을 집

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화와 몸짓, 춤사위, 노래 등이 사용될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중들 앞으로 독립적으로 표현되고 향수된다는 점에서 민속극, 즉 연극으로 규정된다.

〈이근삼 원고지〉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교수와 처의 성격을 정리하고 이들 부부의 성격이 우리 사회의 어떤 면을 암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교수: 아버지로서의 의무감에 짓눌려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하고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무성격자이다.

처: 교수와 같이 타성적인 의무감으로 자식들의 물질적 욕구에 동조하고 있다. 물질주의자이다.

이들은 가족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물질적 소득에 대한 요구를 할 따름이며 기계적으로 순응할 따름이다. 이들의 관계는 다분히 물질 중심적인 관계이다. 나아가 그들은 각자의 삶이 지쳐 나가야 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잊었을 뿐만 아니라 고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2. 이 작품은 희극적 과장이 심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대사와 무대 장치 등에서 희극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고 그것이 작품의 주제 창출에 어떤 의미와 효과를 지니는지 정리하자.

대상	과장된 예	그 의미 및 효과
무대 장치	·벽과 소파 등 교수가 사용하는 공간을 모두 원고지 무늬로 꾸민 것 · 자녀들의 방과 교수가 사용하는 공간을 대조시켜 놓은 것	·규격화된 틀 속에서 무의미한 일상 생활을 하는 모습 · 가족에 대한 의무감에 짓눌린 가정의 모습
의상 및 소품	·장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분장 ·교수의 원고지 무늬 양복과 교수의 허리에 묶인 쇠사슬	·물질주의자의 모습 ·삶이 교수를 압박하고 있음을 드러냄
대사	·3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함	·지루한 일상의 반복을 풍자적으로 드러냄
동작, 기타	·시종일관 몸을 흔들며 이야기하는 장녀의 동작	·화려하고 자유 분방한 성격, 물질에 얽매인 맹목적인 삶 ·지루한 일상의 반복

3. 교수가 신문을 읽고 있는 장면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말도 되지 않는 해괴한 사건이 실린 신문을 읽고 있는 장면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다.

3. 교수가 원고지 무늬의 양복을 입고 있다든가,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다는 식으로 처리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보자.

→희극적 과장과 풍자의 수법이다. 즉 규격화된 틀 속에 갇혀서 무의미한 일상 생활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이고 가시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적인 과장이다.

4. 무대를 온통 원고지 무늬로 장식하는 것은 사실주의 극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무대를 이렇게 꾸미려는 작가의 의도를 말해 보자.

⇒ 이 작품은 표현주의 극이다. 표현주의 극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사건 전개를 피하고 곧바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 상황에 직면한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한다. 즉 일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황을 직접 표현하는 일에 집중한다. 무대의 표현주의적 양식은 소파 카바의 원고지 무늬, 원고지를 곧추 세운 것 같은 벽의 모습, 역시 원고지 칸 그대로인 벽의 무늬 등의 활용에서 두드러지며 외출에서 돌아온 교수가 차고 있던 철책을 풀고 굵은 줄을 매는 장면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원고지 무늬와 철책 등은 교수의 억압된 심리를 과장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주의적 연극 기법이다.

〈이강백 파수꾼〉

촌장 :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

1. 이 작품에서 빌려 쓰고 있는 우화는 무엇인가?

→이리와 소년에 대한 우화이다. 소년은 자주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골탕먹인다. 정작 이리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큰 피해를 입는다. 이 작품은 우화를 빌려 진실의 왜곡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재앙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2. 이 작품이 특정한 상황을 풍자한 것이라면, 대상이 되는 정치적 상황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자.

→1970년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정책을 풍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위선적 실체를 건드려 보려는 작가의 의욕적 시도로서, 이런 우화적인 방법은 그 갈등의 축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자그마한 진실의 파헤침에 독자들은 조심스럽게 쾌재를 부른다. 사실 당시의 열악한 사회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큰 몸짓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 작품에서 소년 파수꾼이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 보자.

⇒ 소년 파수꾼은 이리 떼의 출현을 이유로 마을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촌장의 통치 방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개선하기는커녕 그 질서에 순응하고 다시 양철북을 두드리며 촌장의 통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권력의 회유와 속임수에 넘어가고 만 피지배층의 비겁함과 몽매함을 보여 준다.

4. 이 작품에서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부분을 찾아, 그 의미를 발표해 보자.

⇒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너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의미: 촌장은 마을 질서를 위해 허상의 이리 떼를 만들었고, 사회가 질서를 필요로 할 때마다 이리 떼가 출현했다고 허위 경고를 통해 사회의 다른 문제들에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작품 내용들은 1970년대 박정희 군사 정부가 북한과의 휴전 대치 상황이라는 안보 논리로 이것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악용하여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 작품에서 소년 파수꾼과 촌장 사이의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토론해 보자.

⇒ 소년 파수꾼은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 뿐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자 한다. 촌장은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 당장 폭로하게 된다면 자신의 마을 주민들에게 변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첫 살인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회유한다. 소년 파수꾼은 이때 사실 폭로와 촌장의 목숨을 구하는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촌장이 유혹하는 대로 사실 폭로를 하루 미루고 촌장의 목숨을 먼저 구하기로 결정하여, 결국 촌장의 계약에 넘어가고 만다.

6. 브라운관을 통해 송출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는 영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수용자가 상당히 넓음.	수용자가 비교적 한정됨.
수용 공간이 다양함.(가정, 공공장소, 영업장소 등)	특정하게 구분된 공간
장편 드라마의 경우 일상성이 강함 짧은 드라마일 경우 환상성이 지배적임	비일상성 혹은 환상성이 강함
소재의 보편성 → 친근감을 줌	소재의 특이함 (예: 근친상간, 동성애 등)
가치의 보수성	가치의 진보성
영화와 경쟁하기 위해 청각적인 요소 이용	텔레비전 드라마와 경쟁하기 위해 스펙타클화

〈만선〉 천승세

1. 이 작품에서 방언으로 이루어진 대사는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역센 사투리로 절묘한 대사가 인물의 우직한 성격과 잘 결합되어 짙은 향토성을 보여 주며, 어부들의 꿈과 좌절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2. 곰치의 성격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자.

- (1)긍정적인 면→좌절을 모르는 강인한 집념의 인간형
- (2)부정적인 면→고집스러운 성격으로 파멸의 원인이 되는 점

3. 이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카타르시스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곰치의 굶핍 줄 모르는 집념과 강인한 의지가 오히려 파멸의 원인이 되어 주변 인물들을 불행하게 한 부분에서 한 사람의 무모한 집념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느끼게 된다. 그리고 곰치가 시련을 겪고 만선예의 꿈을 이루었으나 풍랑에 아들 도삼과 딸의 애인인 연철이를 잃고 돌아와 구포택이 실신할 지경에 이르고 슬슬이가 대성 통곡하는 부분에서 연민을 느끼게 된다.